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탈성장(degrowth) 선택요인에 관한 탐색

- 한국의 사례 -

2019년 0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이 동 광

탈성장(degrowth) 선택요인에 대한 탐색

- 한국의 사례 -

지도교수 윤 순 진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이 동 광

이동광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0월

위 원 장 김 태 균 (인)

부위원장 황 진 태 (인)

위 원 윤 순 진 (인)

국문초록

인간의 행위가 지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인류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물질적 토대위에서 성장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빈곤, 사회적 차별과 격차, 특히 오늘날에 들어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위기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서구중심적인 성장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었으며, 탈성장(degrowth) 담론 역시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인류가 처한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대안적 삶 혹은 성장주의에서 벗어난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탈성장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며, 또 그러한 실천을 하는 당사자를 면담하면서 어떠한 계기로 소수의, 대안적인, 비주류의 삶에 편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분석결과는 탈성장요인으로서 자연보호를 위해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높고, 한국의 미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예측할수록 높았다. 또한, 국가자긍심이 높고, 정치뉴스에 대한 노출될수록 탈성장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었으며, 종교가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유의표집하여 인터뷰한 결과를 통해서는 비주류의 삶, 혹은 대안적 삶을 규정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의 필요성과 동일한 탈성장의 가치를 지향한다하더라도 '보통의' 평범한 삶으로부터의 '탈출'과 탈성장으로서 '참여'를 서로 달리 인지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탈성장으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참여자 자신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위의 환경으로서 특히 부모나 친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기할 점은 주위의 우려못지 않게 뜻이 많은 동기들을 확보할 경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탈성장에 부합하는 대안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성장의 다양한 요소는 단번에 완전된 형체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혹은 우연적으로 시작하여 보다 탈성장적인 특성으로 변화해간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 응답자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류 담론의 견고함과 분리에서 오는 불안을 생각해보았을 때 자명한 사실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탈성장에 대한 국내연구의 필요성에 호응하면서, 본격적으로 탈성장 논의를 시도한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도 탈성장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탈성장의 조작적 정의로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질적방법론을 함께 적용하여, 탈성장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려했다는 도전적 시도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몇 가지 존재한다.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가 탈성장만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며, 조사가 이루어진 2014년과 현재(2018년)와의 시차의 단점이 있다. 또한,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문항 중 탈성장 요인에 부합하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있다. 연구의 어려움은 기초자료의 구축부족이나 개념의 비가시성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다.

앞으로도 탈성장 연구가 보다 심화되어 논의되고, 무엇보다 현실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 탈성장, 탈물질주의, 성장-발전주의, 압축성장, 순서형 로짓
학 번 : 2017-26726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 3

1. 생태환경적 접근에서의 탈성장 ····· 4
2. 개인적 요인으로서의 탈성장 ····· 5
3. 가치지향수준에 따른 구분 ····· 6

제 3 절. 논문의 구성 ····· 7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 9

제 1 절. 이론적 논의 ····· 9

1. 성장담론의 역사적 구성 ····· 9
2. 사회생태적 한계에 대한 상이한 태도 ····· 12
3. 탈물질주의와 탈성장간 비교 ····· 15
4. 탈성장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8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 23

1. 정치적 요인 ····· 24
2. 경제적 요인 ····· 26
3. 사회문화적 요인 ····· 28
4. 인구통계학적 요인 ····· 30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33

제 1 절. 연구모형 분석 ····· 33

1. 종속변수: 강한 탈성장 지향 ····· 33
2. 독립변수 ····· 34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41
1. 자료수집 ····· 41
2. 분석방법 ····· 41
1) 순서형 로짓분석 ····· 41
2) 유의표집을 통한 인터뷰 ····· 44

제 4 장. 탈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분석 ····· 46
제 1 절. 변수의 기술통계 ····· 46
제 2 절. 순서형 로짓모형분석 ····· 51
제 3 절. 요인별 분석 ····· 53
제 4 절.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예측 ····· 74

제 5 장. 탈성장의 모습과 연구에서의 발견 ····· 76
제 1 절. 무엇이 주류인가 ····· 76
제 2 절. '탈출'로서의 탈성장과 탈성장으로의 '참여' 78
1. '탈출'로서의 탈성장 ····· 79
2. 탈성장으로의 '참여' ····· 80
제 3 절. 탈성장의 속도: '인정'의 과정 ····· 81
제 4 절. 활동의 확대: 보다 탈성장스럽게 ····· 84

제 6 장. 결론 ····· 86

참고문헌 ····· 88
Abstract ····· 99

표 목 차

[표 1] ····· 7
[표 2] ····· 21
[표 3] ····· 33
[표 4] ····· 38
[표 5] ····· 45
[표 6] ····· 47
[표 7] ····· 48
[표 8] ····· 51
[표 9] ····· 52
[표 10] ····· 54
[표 11] ····· 55
[표 12] ····· 57
[표 13] ····· 69
[표 14] ····· 75

그 림 목 차

[그림 1] ····· 4
[그림 2] ····· 5
[그림 3] ····· 35
[그림 4] ····· 43
[그림 5] ····· 44
[그림 6] ····· 6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유진 스토머(E.F. Stoermer)가 그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폴 크루첸(P. Crutzen)에 의해 널리 사용된 '인류세(Anthropocene)'는 인간의 행위가 지구시스템에 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P. Crutzen and E.F. Stoermer, 2000; W. Steffen et al., 2007; 김지성 외, 2016; W. Steffen et al., 2011). 그간 서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의 과정은 인류에게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라는 대표적인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면서 빈곤이나 열악한 보건상황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경제성장은 사회적 격차나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오염 등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는 상황이다. 현대사회에서 주로 마주하게 되는 위협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되는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의 증가가 그 첫 번째로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격차는 집단내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Hubert Buch-Hansen, 2018). 다른 하나의 문제는 기후변화, 사막화 등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과 생태의 위기로 인해 인간사회와 생물종의 삶의 조건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Speth, 2008).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와 생활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고의 차원을 넘어서, 소비할 수 있는 자연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와 생활방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환경과 사회의 문제는 따로 구분하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이 언급한바와 같이 사회 문제를 제쳐놓고 환경문제만을 해결할 수도 없으며, 그 반대 역시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세르주 라투슈, 2015). 따라서 인류

는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시스템을 비롯하여 성장중심적 관점의 수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물리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대안적 접근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Daly and Farley, 2011; Barnofsky et al., 2012; Turner, 2014; In^es Cosme et al., 2017; Jevons, 1865; Malthus, 1798).

탈성장(degrowth)은 이러한 논의 중 하나로, 1970년대 이후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등 담론이 확산되었다. 탈성장은 2008년 '제1차 탈성장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그 이전인 앙드레 고르(A. Gorz)의 글에서도 해당되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탈성장은 일종의 대안으로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개념이다(D'Alisa et al., 2015; Hueting, 2010; Schneider et al., 2010; Hubert Buch-Hansen, 2018). 물론, 이를 단순히 하나의 개념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데, 연구자에 따라서는 탈성장을 기존의 경제사회시스템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운동 혹은 정치적 슬로건(slogan)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Demaria et al., 2013).

지속되는 위기와 탈성장을 포함한 대안들의 핵심은 이러한 개념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느냐이다. 소위 이야기되는 전환의 필요성과 별개로 그 가능성은 사회내 구성원을 통해서만 확대되고 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중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모든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특히 탈성장 논의에서는 시민의 적극성이 필수요소로 지목되곤 한다(Dunlap and Mertig, 1995; Stefan Drews & Jeroen C.J.M. van den Bergh; 2016).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소비사회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Hubert Buch-Hansen, 2018). 그렇다면 탈성장을 지향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탈성장의 가치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지점은 현재의 환경생태적 위협과 사회적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탈성장 담론이 확산되는 과정이다. 기존의 성장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난 개인이 탈성장의 요소로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대한 응답에 있어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보다 유의한 탈성장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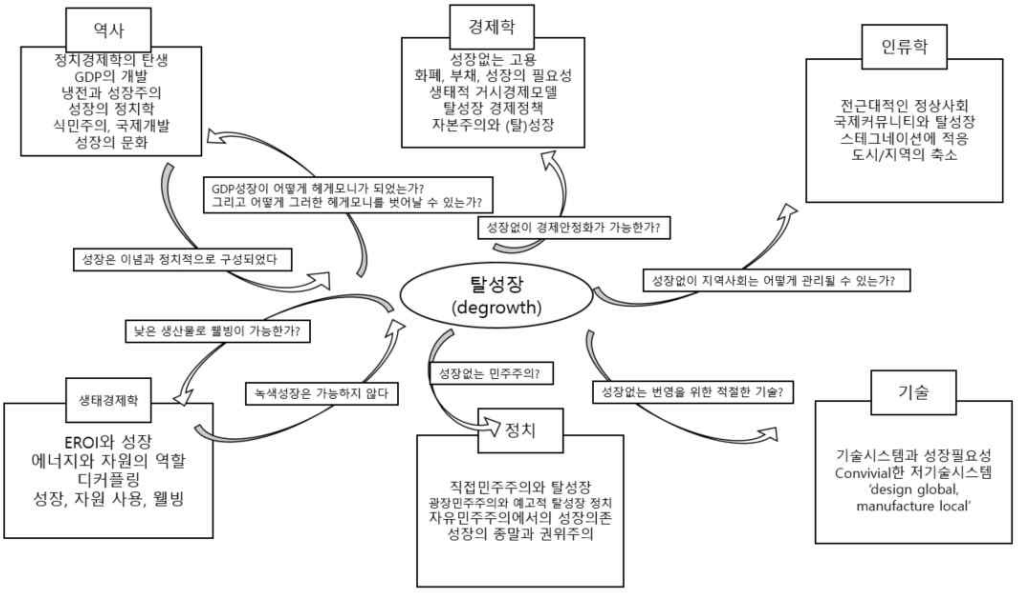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는 탈성장(degrowth)이라고 하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을 국내수준에서 보다 명확히 밝혀내면서 어떠한 요인들이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실증분석의 결과는 동아시아, 특히 압축적 근대화로 일컫어지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다루는 성장의 개념은 개발이나 발전과 마찬가지로 정의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애매한 측면이 있다(우더궁·심지, 1995). 탈성장의 가치도 동일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는 곧, 연구에서 어떠한 사람이 탈성장의 가치를 지향하는지, 어떤 요소와 어느 수준까지를 탈성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탈성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한정하거나, 그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성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담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를 고려하면, 탈성장 논의에 있어서 주로 초점을 두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할 할 필요성이 있다.

탈성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Fournier(2008)는 용어의 유래를 찾는 과정에서 Decroissance의 용래를 프랑스 문학에서 찾는가 하면, Weiss and Cattaneo(2017)는 탈성장(degrowth)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약 100여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탈성장 연구의 개관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Giorgos Kalls et al.(2018)은 그림 1과 같이 앞선 탈성장 논의가 역사, 경제, 인류학, 기술, 정치, 생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의 영역들이 탈성장과 어떠한 맥락에서 연결되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그림 1] 주제별 탈성장 연구와의 상호작용
출처: Giorgos Kalls et al.(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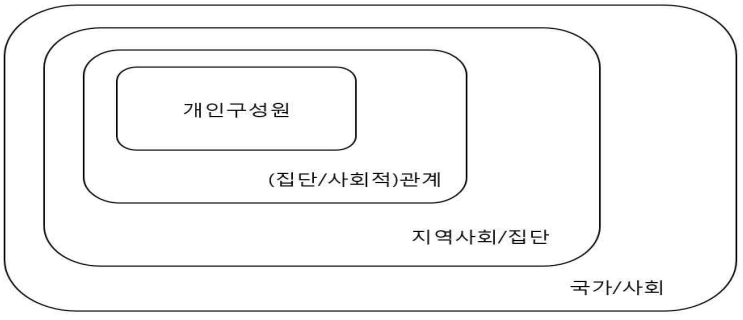
1. 생태환경적 접근에서의 탈성장

이처럼 다양한 담론위에서 탈성장이 논의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구축이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경제, 사회, 정치 및 생태환경 등에 꾸준하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성장에 대한 믿음은 물질적 부를 기반으로 빈곤에서 벗어난다거나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외에도 정치적 만족,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진보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점차 일반 시민은 노동자 혹은 소비자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은 한정된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혹은 더 큰 부를 어디에서 얻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되었다(파슬로 솔론 외, 2018). 이처럼 성장을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됨에 따라 사회적 격차의 발생,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 사막화 등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적 피해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물리적 한계 및 성장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것이다. 이는 탈성장 논의가 발화한 시기가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으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환경주의 및 운동의 시점과도 비슷한 시기를 공유한다는 데에서 재차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성장주의로 인한 현재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차별이나 빈부의 격차 등에 더해 추가적이면서도 주목받는 영역으로서 탈성장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탈성장에 대한 연구범위는 1차적으로 한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회적 고려를 감안하면서도, 중점적으로는 생태환경적 시각에서 주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탈성장 담론이 다시 사회의 문제로, 다시 환경으로 연결되는 긴밀한 연관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2. 개인적 요인으로서 탈성장

이 연구는 탈성장에 관여하는 여러 주체 중에서 개인적 요인에 보다 강조를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개인이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시에, 대중의 의견변화가 전체적인 정책의 변화와 구조적인 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Yang, Yingkui ; Solgaard, Hans Stubbe, 2015; Page and Shapiro, 1983). 물론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층적인 개인은 관계하는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하고 해석할 때에 이와 관련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2] 개인과 사회간의 상호작용
출처: Dahlberg, Linda L & Krug, Etienne G. (2006) 재구성

더하여 개인적 요인을 경험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또 다른 이유는 연구의 재료가 되는 설문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환경이나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즉, 설문지의 특성상 개인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 처해있는지, 사회구조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분석결과를 사회적 차원과 연결하여 논의하는 것뿐 아니라 관련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을 인터뷰하여 보다 풍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3. 가치지향의 수준에 따른 구분

김욱과 이이범(2006)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김욱과 이이범(2006)은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쉬운 참여와 어려운 참여를 구분하였는데, 예를 들면 쉬운 참여의 예로는 투표와 같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행위를, 어려운 참여로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청원, 농성 등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신하기 위한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탈성장에 대한 지향정도를 강약의 정도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강한 탈성장을 지향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이 가치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한다.

앞서 사용된 가치지향의 강도에 따른 구분을 탈성장에 적용한다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대안가치를 지지하는 수준, 그 다음으로는 세금이나 추가적인 부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수준, 마지막으로는 탈성장의 맥락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의향정도이다. 본 연구에서 표1에서와 같이 탈성장에 대한 강한 지향수준으로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있는지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단순한 지지 혹은 경제적 부담을 통한 간접적인 실천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지향의 수준이 낮거나 기존의 경제적 조치를 통한 해결로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강한 탈성장 지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국내의 다분야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의 변동이나 국별 비교연구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김상욱 외, 2013). 연구에는 2014년도의 조사자료를 사용한다. 조사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인구로 전체 사례수는 1,370명이다. 분석에 활용되는 설명변수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투입한다.

[표 1] 가치지향의 정도에 따른 탈성장의 구분

가치 지향의 정도	구분	내용
약한 탈성장	단순한 지지	탈성장(대안적 삶)에 대한 지지
	경제적 조치로 해결	환경상품, 탄소세 등을 통한 해결
강한 탈성장	근본적 해결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 유무/정도

제 3 절. 논문의 구성

논문은 통계적 분석에 앞서 연구에 근간이 되는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성장담론의 역사적 구성, 사회생태적 한계에 대한 상이한 태도, 탈물질주의와 탈성장간의 비교, 탈성장 논의의 등장을 다룬다. 이후에는 기 실시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탈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구통계학적으로 구분하여 통계적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성장에 대한 가치지향과 관련한 해당 가설을 요인별로 설정하고, 각 변수들을 조작하여 순서화된 로짓모형을 실시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탈성장 가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무엇이며, 예

상과 달리 영향을 주지 않은 변수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다양한 맥락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풍부한 논의를 위해 실제로 이와 비슷한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는 영역의 참여자 혹은 활동가와의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탈성장 가치를 지향하게 된 이유와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어떠한 요인들이 탈성장 가치로서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양적방법론 및 질적접근을 통해 도출한 분석내용을 근거로 하여 탈성장 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정리한 이후,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힌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성장담론의 역사적 구성

개인의 개발이나 사회의 발전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정의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다(조수룡, 2016). 분명한 것은 '성장(growth)'한다는 것이 개발 및 발전의 개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1]. 개발 혹은 발전(development)의 개념이 기존의 내재해 있던 속성을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특정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상정한다면, 성장한다는 것은 곧 그 경로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Esteva, 1992). 본래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출발한 성장의 개념은 18세기 유럽을 거치면서 선형적이면서도 소위 '진보적'인 형태의 유럽중심적인 사회현상으로 이식되었다(김종태, 2014).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성장을 인간의 육체적 성장과 같이 보편적인 단계로서 인식하게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타)구성원이나 지역내 다양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였다(Esteva, 1992). 따라서 가난한 시민과 국가란 미성숙함의 증표로서 문제시되면서 소위 '후진국'이 '선진국'의 길로 가야함을 역설하였다(Escobar, 1995).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성적 근대화로 대표되는 이러한 경험은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두면서 경제성장을 일정한 단계로서 인식함으로써 인류가 지향해야할 종국적 목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박영신, 2012).

소위 '서구식 개발 혹은 성장'이 저개발국에 이식되고 세계화되면서 기존의 성장담론에는 2가지 변화가 발생하였다. 첫째로는 '아래로부터의 개발' 요청이다. 기존의 서구 혹은 선진개발국 중심의 성장논의에서 다양

1) 영어인 'development'는 한국말로 개발 혹은 발전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이 둘 사이에는 엄밀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개발은 양적인 수준에서, 발전은 질적인 수준에서 얻급되기도 한다. 또한 발전이 개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김태균, 2016)

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소위 참여적 방향으로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둘째로는 성장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인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젠더, 지역적 문제, 환경 등 보다 미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14). 기존 담론에 대한 전자의 요구가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식의 성장전략을 요청한다면, 후자에 대한 관심은 보다 지역적인 문제, 비정치적인 대상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관점은 주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포스트구조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기존의 성장담론이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맥락과 유리되어 보편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사회적으로 구성된 '중립적이지 않은' 권력을 해체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개발이나 성장 자체가 인간사회를 보다 나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전제 자체를 부정하며, 선진개발국이 진단하는 빈곤의 문제, 정치 및 경제체제의 문제 및 그에 대한 조치를 거부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의 접근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특히 마이클 와츠(Michael Watts)는 이러한 관점이 지역사회의 생활을 낭만화한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해결방법이나 구상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4).

성장담론은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 예컨대 인권, 지역, 젠더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의 개발담론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환경(environment)이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전 세계의 환경문제는 자연을 변형하여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개발에 대한 신념에 커다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나 레이첼 카슨의 저서가 당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일깨웠다면, 그 이후에도 지속된 환경악화와 위험은 인류가 그동안의 성장에 경도되면서 간과하였던 예기치 못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하였다. 1972년에는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가 발간되면서 현재까지와 같은 형태의 사회구조로는 과거와 같은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 있어서도 여전히 성장담론이라는 것은 인간중심의 가치 판단으로서, '성장의 한계'라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 혹은 배려보다는 '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반응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조수룡, 2016). 결과적으

로 1970-80년대를 걸치면서 기존의 성장담론은 성장 자체의 한계, 남북 격차로 인한 갈등,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적, 생태환경현상에 대한 대응, 혹은 반작용의 형태로 변화해갔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은 성장담론에서 또 다른 변화를 제시한다. 1987년 유엔(UN)은 브루틀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로 알려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작성하고, 1992년부터는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엮는 또 다른 방식의 관점은 질적인 성장이나 탈동조화를 통한 부정적 성장효과의 억제이다(니코 페히, 2015). 주로 과학기술을 통한 효율성의 개선이나 탈물질화된 삶이,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에 대한 믿음은 제본스의 역설을 통해 설득력 있게 밝히는 바와 같이 총량으로서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Alcott, B. 2005; Ryan Gunderson and Sun-Jin Yun, 2017). 이는 본래의 탈동조화를 통한 예측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냄으로써 과학기술의 개선과 소비총량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효율성이 높아지면 되레 절약된 자원, 특히 화폐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고리는 특정한 과학기술이나 상품 및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다수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발전이 과거와 같은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현재 직면한 문제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한상진, 2018; 윤순진, 2009; 이홍균, 2000). 또 다른 경우에는 기존 성장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타협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동력을 방해하는 '풀뿌리 개발'과 같은 형태를 경계하기도 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4). 기후변화의 문제는 점차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사회내의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나 소외 역시 해소되기보다는 악화되는 상황이다. 기존의 선진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 최빈국의 사회문화적 불균등뿐 아니라 국가내에서도 급속도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장담론

자체에 대한 제고와 생활방식의 재조정만이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최근의 성장담론은 기존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단선적인 진화론적 사고를 해체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는 있지만, 탈성장(de-growth)이나 비성장(a-growth), 혹은 반성장(anti-growth)과 같은 대안적인 성장담론은 현재까지의 무한한 경제성장과는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더글라스 러미스, 2002). 조수룡(2016)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활동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예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탈성장 맥락에서 현재의 활동이 어떠한 점에서 공유되는지 혹은 차별점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성장에 대한 논의를 이분하여 밝힌 드와이트 왈도(Dwight Waldo)의 분류는 성장담론을 둘러싼 논의의 변화를 정리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드와이트 왈도는 산업화 초기부터 인류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소위 이야기되어지는 '진보'로 나아가게 되는 시기를 상승기대혁명(revolution of rising expectations)으로 명명하고, 그 이후의 생태적 위험, 기후변화, 성장의 한계, 사회적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강기대혁명(revolution of lowering expectations)을 구분한다. 전자의 전제는 성장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인류가 산업화에 매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통해 부유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 즉 성장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문제는 사회적 위기와 환경생태적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지 또는 어떤 의논의 과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사회생태적 한계에 대한 상이한 태도

지금까지의 성장담론이 획일화된 성장담론에서 분화된 영역에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발로 변화하였다면, 그 중 특히 환경에 대한 강조는

주목할 만하다. 한 예로서 전 세계의 대표적인 개발논의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는 기존(MGDs)의 항목에 더하여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성',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성장담론은 기존 사회경제적 맥락과 더불어 생태적 한계 및 환경문제가 함께 부각되면서 새롭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장의 문제가 곧바로 환경의 문제와 관련이 있게 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탈성장 논의가 초기에는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존 드라이젝(John Dryzek)이 현재의 사회생태적 한계에 대한 3가지 태도를 구분한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Dryzek(2013)에 논의를 바탕으로 Quilley(2017)는 생태적 한계에 대한 양립이 불가능한 세 가지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배치된 입장은 각각 "한계를 거부"하거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를 수용"하는 태도이다.

한계에 대한 첫 번째 담론은 이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확고한 거부의 의사는 경제학자, 기술낙관론자 등에 의해서 주장된다(Solow, 1974; Diamandis and Kotler, 2012). 논의의 주된 핵심은 현재의 생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해 인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기술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Kaitlin Kish & Stephen Quilley, 2017).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중심적 사고는 기술의 내재된 속성을 중시하는 한편, 인류에 대한 불확정적인 낙관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구생태계뿐 아니라 이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인지, 되레 이를 더 증폭시키는 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의 위기를 인지하는 또 다른 방식은 지구의 물리적 속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생태적 한계는 인정하되, 정치적 행위, 기술적 설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담론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논의 초기에는 주로 법제화를 통한 규제 혹은 국제적인 합의로 문제해결을 시도한다(Elliott, 2004). 그 중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 가장 많

이 논의되고 있는 담론으로, 그 기저에는 인류에게 지속적인 성장으로의 이행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Daly, 1990; Giddings et al., 2002; Kemp et al., 2005). 국내에서는 녹색성장이 그 예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Ryan Gunderson & Sun-Jin Yun(2017)에 따르면 녹색성장의 접근방식은 환경적 부담을 경제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환경의 경제화와 경제의 녹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경제가 환경보호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간에 다양한 시너지가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Jacobs, 2013; J€anicke, 2012). 이처럼 두 번째의 입장은 상당히 간명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생태적 한계를 단순히 뭉뚱그리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Kaitlin Kish & Stephen Quilley, 2017). 핵심적으로는 생산과 소비를 기반으로 한 물질주의적 성장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배제된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나, 편익의 공정한 분배가 실현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한계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입장은 사회생태적인 한계를 수용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적 문제나 환경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새롭게 등장하였다기보다는 Odum and Odum(2001)이 언급한 “신 암흑기(new dark age)”를 비롯하여 몇몇의 비관적 입장을 견지한 학자(Heinberg, 2005; Kunstler, 2012; Homer-Dixon, 2007) 혹은 보다 긍정적 태도로 논의를 전개한 학자(Daly, 1997; Victor, 2008; Cattaneo, C., et al., 2012)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탈성장(degrwoth)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사회적/환경적 위기와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세 번째 입장을 수용한다. 이는 성장중심의 패러다임과 산업화를 비롯한 생산과 소비의 무한한 확장이 지구내 한정된 자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혹은 인류의

능력에만 치중하여 마치 문제가 사라지거나 외피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통한 접근으로는 현재의 사회적 격차나 문화적 획일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3. 탈물질주의와 탈성장간 비교

현재의 위기에 대항하는 변화의 담론으로서 전통적 가치의 변화와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치변화에 주목하는 탈물질주의는 간혹 탈성장과 혼용되기도 한다(Ryan Gunderson et al., 2018). 그러나 탈성장은 비물질적인 것, 특히 비물질적인 성장과의 명료한 구분이 필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비물질적 성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물질기반의 사회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전히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성장을 다루기 때문이다. 파슬로 솔론 외(2018)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칩과 에너지 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물질기반의 시스템이 전제가 된다. 따라서 탈성장을 탈물질주의와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단순한 혼용으로 인한 착오보다는, 앞서 언급된 '풀뿌리 발전'과 같이 기존의 성장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통용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외 탈물질주의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탈성장 가치로서의 환경적 태도를 단순한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의사나 세금부담의향 등으로 환원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토대위에서 판단하는 것 뿐 아니라, 개인 혹은 사회의 가치가 일련의 '단계'를 이룬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기도 하다(박재홍·강수택, 2013). 이러한 관점은 탈성장이 영향을 받아온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포스트구조주의와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탈물질주의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불필요한, 폐기가 시급한 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탈성장 논의에서 탈물질주의가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간 많은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가 진행된 탈물질에 대한 연구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탈성장 논의를 더욱 풍부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탈물질주의에 대한 이론 및 경험적 선행연구를 통해, 탈성장 담론을 충분히 살펴보고 활용이 가능한 경험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탈물질주의는 1970년초부터 잉글하트에 의해서 논의가 진행된 담론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가 되어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관련한 실증연구가 다수 존재한다(Inglehart, 1971). 탈물질주의 담론은 '결핍 가설'과 '사회화 가설'에 기반을 두며, 매슬로우의 욕구단계론(Hierarchy of needs)에도 강한 영향을 받았다. 결핍가설은 개인이 자신에게 부족한 요소에 대해 일차적으로 중요한 가치부여를 한다는 가정이다. 사회화 가설의 경우에는 개인가치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형성되어 지속되고, 환경 및 가치 선호에 있어서 시간적 지체가 발생한다고 전제한다. 시간적 지체현상은 유년기/청소년기에 경제적이나 신체적으로 체험한 경험이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행사한다고 설명한다(박재홍·강수택. 2012). 매슬로우의 단계적 욕구에 대한 배열은 탈물질주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논거가 된다.

잉글하트는 물질주의/탈물질주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2개의 가치의 축을 구성하였다(김우창 외, 2017). 첫 번째의 축은 전통적 가치와 세속합리적 가치간의 긴장상태를 구분하였으며,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이혼이나 낙태, 자살 등을 반대하거나 애국심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세속합리적 가치는 권위를 중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혼이나 안락사 등에서도 관대한 태도를 유지한다. 다른 축을 구성하는 것은 생존적 가치와 자기표현적 가치간의 정도이다. 생존의 가치는 언급된 바와 같이 물리적 안전경험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신뢰나 관용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자기표현적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은 친환경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에 대한 강조, 소수자에 대해서도 양보의 수준이 높다. 잉글하트는 경제적 선진국이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성장중심, 생산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대안적 가치로의 전환과정에 있다는 핑크빛 주장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탈물질주의를 정식화한 Inglehart(1997)의 저서에서

는 탈물질주의 핵심을 '세대간 가치변화 이론'(theory of intergenerational value change)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결국 경제성장의 경험과 시간에 따른 세대간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재홍·강수택, 2012).

살펴본 바와 같이 탈물질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탈성장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탈물질주의를 통해 사회빈부의 격차나 환경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장담론을 해체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탈물질주의로의 변화가 기존의 물질주의적 가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새로운 환경담론이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작되거나 주목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는 탈물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가치의 변화를 물질적 풍요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단선화된 일반단계론으로 규정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탈물질주의는 개별 집단에 대한 특수성이 부족한 반면, 탈성장담론은 이에 비해 단일한 가치로서 탈성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실행과정에 있어서도 각 국가와 지역의 특수성이 발현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Hubert Buch-Hansen, 2018).

결국 탈성장과 탈물질주의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기존의 '성장'에 대한 고려의 정도이다. 탈물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의 변화는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를 충족한 이후에는 비물질적인 가치, 예를 들면 자유에 대한 중요성, 친환경적 태도나 소수자 존중 등으로 전환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치변화 자체가 기존의 '성장'중심적인 사고와 행위에서 벗어남을 자연스럽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기존의 성장이라는 것이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더 큰 행복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치재(positional goods)를 여전히 '물질적'으로 소비한다. 위치재란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로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는 별개로 작동한다. 최근 그 수가 늘어가고 있는 여행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자신의 행위나 소비모습을 대중에게 보이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를 다루는 매체 또한 그 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기존의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통해 성장담론에서 벗어났다기보다는 새로운 욕구로서 새로운 상품의 소비로 단순히 변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탈물질주의적 가치에서 벗어나 보다 문화적인 방식으로 가치가 변한다는 것이 반드시 현재의 사회문제나 환경문제의 변화와 관련을 맺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화적 소비라는 것은 자기를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 중 하나로서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위해서라도 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즉, 과도한 생산과 소비로 인한 박탈감이나 환경위기는 새로운 상품화된 문화로 또다시 변화하고, 이것은 개인이 자유를 누리는 수단이 된다. 결론적으로 탈물질주의화된 사회라는 것이 반드시 친환경적 사회 혹은 사회적 격차가 보다 완화된 사회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때문에 탈성장논의는 물적 한계에 대한 소비의 문제와 성장담론에 집중하고 있는 탈물질주의와의 구별이 필요한 것이다(니코 페히, 2015).

4. 탈성장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탈성장의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탈성장을 “공정하고, 참여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자발적인 전환(transition)”으로 정의하는 한편, 부국이 국가 및 지구촌 경제내에서 “적정한 규모”를 추구하기 위한 경로로 인식되기도 한다(Flipo and Schneider, 2008). 다른 정의로는 탈성장을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생태환경조건을 강화하고 인간의 웰빙을 증가시키는 생산과 소비의 적절한 다운스케일”로 규정하거나 “다종다양한 사고방식과 행동의 결합된 틀”로 보기도 한다(Schneider et al., 2010; 자코모 다리사 외, 2018). 이처럼 탈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자의 정의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연대기적으로 그 흐름을 간략히 추적해보고자 한다.

누가 탈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연구가 존재하지만, 탈성장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프랑스어 ‘데크

로상스(decrossance)'는 1972년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탈성장 논의에서는 물질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더 많은 소비를 억제한다기보다는 소비 자체를 줄임으로써 생태적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자코모 달리사 외, 2018). 특히 게오르게스쿠-뢰겐(Nicholas Georgescu-Roegen)은 경제를 지구의 물리학적 한계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전제조건하에 두어야 한다는 생명경제학을 강조하였으며, 경제 체제와 그것에 내재한 가치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였다(파슬로 솔론 외, 2018). 탈성장 담론에서 저명한 위치에 있는 세르쥬 라투슈가 '환경을 생각하는 거의 유일한 경제학자'라고 언급한 게오르게스큐-뢰겐은 1971년 엔트로피 법칙을 소비과정에 접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후, 게오르게스쿠-뢰겐의 논문 '탈성장의 내일(tomorrow, de-growth)'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의 핵심은 자연과 사회를 하나의 계(system)로 인식하고, 자연을 단순 재생산의 닫힌 체계로, 사회를 확대재생산이 가능한 열린 체계로 상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나 환경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은 자연이 열린 체계가 아니고 사회가 닫힌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을 억제하는 사회의 닫힌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홍균, 2000).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가 되면서 탈성장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 비해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후 2000년대가 되어서 지속가능한 탈성장(sustainable degrowth)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이후 탈성장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한 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자코모 달리사 외, 2018).

초기 탈성장의 논의가 물적자원기반의 문제에 그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관련하여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등 각지에 연구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에는 탈성장과 관련한 첫 번째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정치적 슬로건이자 운동의 성격을 띤 탈성장은 단순한 담론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차 없는 도시나 거리에서의 공

동 식사, 광고 반대시위 등이 실천적 활동의 예로 소개된 경우도 있다(Cattaneo, C., et al., 2012; Kosoy, N., 2013; Saed, 2012; Whitehead, M., 2013).

다양한 기반위에서 다층으로 분화된 탈성장에 대한 구분 중에서 문제의 주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에 따른 분류는 상당한 설득력을 보인다.[2] 즉, 오늘날의 탈성장론이 초기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자원의 문제와 같은 물리적 한계를 주로 강조하느냐 혹은 이후 진행된 탈성장 논의와 인접한 자본주의, 산업화, 성장중심의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사회적 한계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분화된 탈성장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이상호, 2008).

먼저, 기존의 성장을 지속하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한계상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탈성장 담론으로는 제로성장(zero-growth economy)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한여 신맬서스적 접근 또한 탈성장 담론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의 사회생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 혹은 항상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장의 한계나 앞서 언급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지만, 허먼 데일리(H. Daly)는 '지속가능한 탈성장'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지속가능성 논의와 탈성장을 결합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탈성장을 주장하는 담론은 단순히 성장개념과 자연환경을 조화하자는 논의에 머문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이상호, 2008). 유의할 것은 탈성장이 단순한 경기침체와 부정적인 성장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점이다. 탈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탈성장경로는 음(-)의 성장기간을 포함할 수는 있으나, 기존의 경제체계에 변화가 필요한 정도까지만 발생한다(In^es Cosme et al., 2017; Schneider et al.,2010). 그러나 사회적 한계를 보다 강조한 게오르게스큐-뢰겐은 정상상태경제(steady-state economy)에서도 현재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한계에 중요성을 두는 탈성장 담론은 앞서 언급된

2) 한상진(2018)은 탈성장 모델을 영어권 SSE의 무성장론, 남유럽에서의 논의, 독일어권의 PG관점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Borowy, 2017).

지속가능한 발전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게오르게스큐-뢰겐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유일한 대안은 경제적인 풍요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한다(Georgescu-Roegen, 1976). 문제의 근본원인을 근대사회로부터의 가치지향에서 찾기 때문에, 현재의 성장중심의 가치관에서 탈피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된다(이상호, 2008). 마찬가지로 탈성장과 사회적 한계를 강조한 라투슈는 여덟 개의 R이라고 표현되는 알파벳을 통해 탈성장의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2과 같다.

[표 2] 탈성장 사회를 위한 여덟 개의 R
출처: 세르주 라투슈(2015)

8가지의 R	내용
재평가하다 (re-valuate)	지배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재평가
재개념화하다 (re-conceptualize)	기존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선
재구조화하다 (re-structure)	기존의 생산관계 및 사회관계 재조직화
재분배하다 (re-distribute)	사회내 재분배
재지역화하다 (re-localize)	지역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할과 기능
축소하다 (reduce)	소비의 축소와 일자리 나눔
재사용하다/재생하다 (re-utilize/recycle)	낭비와 계획적 진부화 방지, 재사용

이 연구는 다양한 탈성장담론 중에서 사회적 한계에 보다 중요성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는 입장을 수용한다. 대표적인 학자인 게오르게스큐-뢰겐이나 라투슈가 강조하는 근대가치관으로부터의 탈피, 즉 성장/개발중심의 가치에서의 해방이라는 핵심개념을 이론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라투슈는 탈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양의 근대적 사고관에서 벗어

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넬리우스 가스토리아디스(Cornelius Castoriadis)의 강한 영향을 받은 라투슈는 서양의 근대문명이 “상상적 의미작용(imaginary signification)”을 만들어 내었으며, ‘성장’이 인류가 지향해야할 근본적인 목표가 되었다고 지목한다(Castoriadis, 1991). 자연스럽게 라투슈의 탈성장론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와 같은 관념 혹은 가치를 해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공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혹은 자본축적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라고 할 수 있다(Latouche 2004; 이상호, 2008). 탈성장 담론을 살펴보면, 라투슈는 노동시간의 단축, 일자리를 나누기를 통해 사회구성원이 단순한 경제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유대와 협동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삶의 형태로서의 공동체나 지역분산화를 지지하면서 개인의 자율성을 회복하여 지배적 권력관계로부터 민주적인 형태로의 탈성장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탈성장 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 낭만화의 문제, 저개발·개발도상국내에서의 논의 등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곤 한다. 이미 자본주의 성장체계에 익숙한 사회에서 개인이 성장중심주의적 가치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상호(200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는 비단 탈성장만의 문제는 아니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보다 덜 급진적인 주장의 경우에서도 확인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측면은 탈성장 논의에서 자주 간과되는 측면으로서 성장이나 발전의 개념을 개발도상국이나 저발전국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즉 대부분의 탈성장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사회적 형평이나 환경에 대한 강조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입장이 남북간의 입장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탈성장과 개발도상국의 연결성을 강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In^es Cosme et al., 2017). 이는 다른 의미에서의 남북문제 혹은 환경정의의 문제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빈국에서는 일정부분의 경제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탈성장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Demaria et al., 2013; Kallis

et al., 2012; Martínez-Alier 2013).

탈성장이 적용됨에 있어 국가적, 지역적 특징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유럽중심의 탈성장 논의와 아시아의 맥락을 연결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아시아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본의 탈성장론에 대한 연구를 개괄적으로 소개한 연구로 여인만(2018)은 일본이 고도경제성장기인 1960년대부터 약 20년간 근대적 성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탈성장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가 번역되어 소개되었으며, 라투슈 뿐 아니라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등의 저작이 출간되었다고 한다. 다만 저자 역시 주지하다시피 탈성장론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해외의 연구조차 충분히 소개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무엇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탈성장 담론을 어떻게 확대하여 적용할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국내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탈성장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저 국내의 탈성장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있다. 국내 출간된 단행본이나 논문은 그 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나마 출판된 글이라고 하더라도 번역서이거나 해외에서의 탈성장 담론을 정리한 수준의 논문이기 때문이다. 국내논문으로는 김영한(2015), 지주형(2016), 박섭(2017), 남궁희수(2017), 이상호(2016), 이병철(2013), 여인만(2018)이 있는데, 이 중 김영한(2015)과 남궁희수(2017)는 거대교회에 대항하는 작은 교회론과 영성 공동체교회 등 종교적 관점에서 탈성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주형(2016)과 박섭(2017)의 글은 후기와 서평에 가깝다. 여인만(2018)의 연구와 이상호(2016)의 연구는 그동안의 탈성장과 관련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위와 같이 탈성장을 주제로 다루는 경우에는 주로 해당하는 내용이나 담론에 대해서 국외에서 먼저 논의된 것을 득하여 정리한 것이 대

부분으로, 탈성장 논의를 한국사회에 비판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탈성장 연구의 추가적인 어려움은 국내외 탈성장 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탈성장(degrowth)을 다룬 통계적 분석 및 경험적 연구가 부족 혹은 부재하다는 점이다(Martin Weiss and Claudio Cattaneo, 2017). 이는 기본적으로 탈성장이라는 것이 비가시적인 대상일 뿐 아니라 해당하는 개념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탈물질주의와 대조되는 것으로, 탈물질주의의 경우에는 잉글하트에 의해 탈물질주의의 개념이 널리 소개된 이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치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그로인해 탈물질주의에 대한 연구는 해당하는 개념과 경험적 분석을 위한 자료의 획득이 쉬운 편이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참고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물질주의에 대한 선행연구까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탈성장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적용해보고자 한다.

1. 정치적 요인

성장에 대한 담론은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체제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곧 좌우진영이나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무관하게 성장담론에 있어서는 대립의 여지가 없이 환영받아온 전략이라는 의미이다(홍성태, 2015). 박영신(2012)이 한국의 개발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개발에 대한 욕망은 정권을 구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 사회를 관통해나가는 시대의 가치였다. 반면 탈물질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어수영(2004)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여 탈물질주의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적 이념성향이 가치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혔는데, 좌파적 성향의 사람이 우파적 성향의 사람보다 탈물질주의적 경향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김

욱·이이범, 2006; 강수택·박재홍, 2011). 위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정치적 이념은 성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없는 편이나, 탈물질주의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분석을 통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변수로 선정하여 해당하는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의 유의성과 그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의 수립은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탈물질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이념으로서 진보적 성향의 사람이 보다 탈성장 가치를 지향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설1. 정치적 이념
: 정치적으로 진보일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을 것이다

정치적 요인의 두 번째 요소는 정부가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정부는 여전히 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기능하면서, 기후변화대응이나 사회의 자원재분배와 관련한 정책을 통해 구성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개인들은 사회내 불안이나 환경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위험을 인식'하게 된다(강민완·이병국, 2016). 즉, 어떤 위험은 객관적 사실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지될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특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요청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생태환경적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해당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는 근본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가 해당사안에 대한 위기관리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회구성원들이 역시 탈성장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개인의 입장에서 노출되는 위협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거나 정부 수준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역시 이에 가담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가능성을 모색하지만, 그와 반대로 정부 역시 해당하는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임

으로서 이에 대한 개인적 대응을 시도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2. 정부대응능력

: 정부대응능력이 높을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을 것이다.

기존의 정치적 요인 중 탈성장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는 지역화와 공동체이다. 탈성장은 기존의 국가중심의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반동으로서 지역의 역할에 주목한다(라투슈, 2015). 이는 구조적인 성장 촉진의 요소로서 복잡한 생산과 유통 체계를 간소화하여 분해함으로써 지역이 외부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지역화된 공동체의 역할은 전환의 핵심적 주체로서 사회적 공존과 생태적 공생의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최현 외, 2017). 아쉬운 점은 이 연구가 다루는 설문자료에는 이와 관련한 질문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의 인터뷰를 통해 그 의미를 가늠해본다.

2. 경제적 요인

지금까지의 성장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경제성장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요인이 탈성장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수준이 증가할수록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나 민감성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상당수의 연구 또한 존재한다(Franzen and Meyer, 2009; Deressa et al., 2011). Diekmann and Preisendörfer(2003)에 따르면 경제적 요소가 실천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는 근거는 저비용가설로 설명된다. 저비용가설은 개인이 환경적 관심이나 우려를 표출하는 데에 있어서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 혹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확보되어야 그 다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단계적 가정이다. 이러한 가설에서는 단순히 세금이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탈성장의 관점에서 소비를 축소하

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Kachi, A. et al.(2015)에 따르면 경제적 불황시기에는 단기적 효용의 경제적 조치가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환경정책보다 대중에게 매력적인 정부정책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글의 연구분석에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함께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소득수준의 변수를 추가한다. 이는 절대적인 양의 경제적 소득과 함께 개인이 평가하는 '주관적 소득평가'로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하는 가설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과 주관적 소득평가가 높아질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가설3. 월평균 가구 총소득

: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을 것이다.

가설4. 주관적 소득평가

: 주관적 소득평가가 높을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을 것이다.

다음 경제적 요인에는 개인이 향후 국가의 경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개인수준에서의 경제적 요인 및 현재수준에서의 평가와 달리 집단이나 국가수준에서의 경제를 개인이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을 묻는 탈성장의 가치지향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하는 가설로는 개인이 국가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할수록 탈성장요인으로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있을 것이라는 양(+)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가설5. 국가경제전망

: 국가경제전망이 긍정적일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성장 담론과 관련하여 거듭 강조되는 경제적 요인에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공유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일자리 공유와 노동시간의 단축은 단순히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자율성이나, 리바운드 효과의 정반대 효과를 불러 오는 '의도적인 비효율화'와도 관련이 있다. 곧, 분업화와 전문화로 대표되는 대량생산을 통한 총생산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사회적, 생태적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요인 중 하나인 분산화, 지역화에 대한 질문이 부재한 것과 마찬가지로,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질문 항목에는 이와 관련한 적절한 질의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부분도 동일하게 관련자의 인터뷰를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3.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에서 하나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며 구성된다. 특히나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적 요인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위험은 온전히 합의된 상태로 그 위험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취약성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화된다. 이는 집단내에의 생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Guagnano et al, 1995). 마찬가지로 탈성장에 대한 가치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를 취득함에 따라 비물질적 가치로 이동한다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나 각 개인이 노출되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조합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실증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탈물질주의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여부 혹은 신뢰정도가 중요한 연구의 변수로 지정되곤 한다(Inglehart 1990; Inglehart, Norris and Welzel 2003, Almond and Verba, 1963; Putnam, 1993). 선행연구에서는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고, 탈물질주의적 경향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신뢰가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장수찬, 2004). 이에 이 연구에서는 탈성장을 적용할 경우 타인에 대한 신뢰나 사회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해

당되는 가설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강한 탈성장에 대한 선택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가설6. 타인에 대한 신뢰
: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 혹은 애국주의 역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국가주도의 강력한 성장중심의 개발사업이 1960년대 이후부터 누적되어온바 개인과 집단, 국가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홍성태, 2015).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나 기존의 시장주도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낮고, 탈성장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 중 연구에서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탈성장간에는 음(-)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진행한다.

가설7. 국가자긍심
: 국가자긍심이 높을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낮을 것이다.

개인이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사회문제나 환경생태적 이슈들은 단지 자신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의 국지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면서도, 이와 동시에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잇다. 예를 들면 타국의 자연재해나 경제불황으로 인한 시위,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사안은 단순히 먼 타국의 소식이라기보다는 국내의 문제 혹은 현상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서 결국에는 시민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로 정치 뉴스에 노출되는 정도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자연과학적 환경정보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

해 개인이 노출되는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가설로는 개인이 뉴스에 접촉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다고 설정하였다.

가설8. 정치뉴스노출
: 정치뉴스노출이 높을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종교의 유무를 포함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정 종교에 따라 친환경적 동기나 행위를 억제하기도 하며, 특정한 행위와 친환경적 행동 간에는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Evans and Feng, 2013; Woodrum and Wolkomir, 1997). 이는 대게 종교적 가치가 그 이외의 가치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그들이 속한 곳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E. Keith Smith et al., 2018). 가설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설9. 종교 유무
: 종교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을 것이다.

4. 인구통계학적 요인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킨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만을 설명변수로 두고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마인섭 외(1997)와 김욱(2009)의 연구가 있으며, 탈물질 가치와 사회인구학적 변수간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탈물질주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알려진다. 여기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도시화 요인을 포함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먼저 성별변수를 다룬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태환경적 우려가 높다는 실증연구가 많다(McCright, A.M., 2010; Dietz, T. et. al., 1998). 주로 선행연구에서는 그 이유로 '사회화'를 언급하고 있

으며, 성별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나 행동의 요구가 문화에 깊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성별이 환경에 대한 특정한 행위나 태도를 견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M.A. Vincente-Molina, 2018; Zelezny et al., 2000). 반면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로는 Xiao and Hong(2010)이 중국내의 성별과 환경문제간의 실증분석을 한 것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환경에 대한 우려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기존 서양에서의 연구결과와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아시아적 특수성 혹은 중국의 정치문화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예로 Hayes(2001)는 성별요인이 환경적 선호와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 성별변수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가 탈성장 가치로서의 생활수준을 낮출 수 있는 의향에 양(+)의 방향에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사회의 개별 문화에 따라 남성 혹은 유의한 수준에서의 상관성이 없게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그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외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보수적이며, 친환경적 행위에 대한 지지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위기나 환경적 우려에 대한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는 교육수준을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상당수의 연구가 교육수준과 환경적 행위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지속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교육의 정도가 관심이나 행동변화에 촉진하는 데에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한다(Zsoka, A.. et al, 2013; Lozano, R. et al., 2013). 도시화의 경우에는 탈성장이 주로 강조하는 지역화 혹은 기존의 생활수준에서의 도시와 시골간의 격차 등이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으로서의 탈성장을 선택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Tremblay&Dunlap(1977)의 연구나 DeGroot(1967)의 연구는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우려가 높을 것

이라고 가정한다. 가정에 따르면 시골에 거주하는 개인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환경효과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 보다 실용적 태도로서 자연자원을 이용하길 선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0. 성별
: 남성보다 여성이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을 것이다
가설11. 나이
: 나이가 증가할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낮을 것이다.
가설12. 교육수준
: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을 것이다.
가설13. 도시화 정도
: 도시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탈성장에 대한 지향이 높을 것이다.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분석

1. 종속변수: 강한 탈성장 지향

연구의 종속변수는 “강한 탈성장 지향”이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탈성장에 대한 가치의 지향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응답자에게 사용한 질문인 “귀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라는 응답을 사용한다. 응답자에게 제시된 답변으로는 “매우 의향이 있다”, “약간 의향이 있다”,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별로 의향이 없다”, “전혀 의향이 없다”, 그리고 “모르겠다”이며, 응답자에게 전체 보기카드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강한 탈성장 지향”)에 대한 응답에서 결측처리된 1명을 제외한 1,369명에 대한 분포는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종속변수에 대한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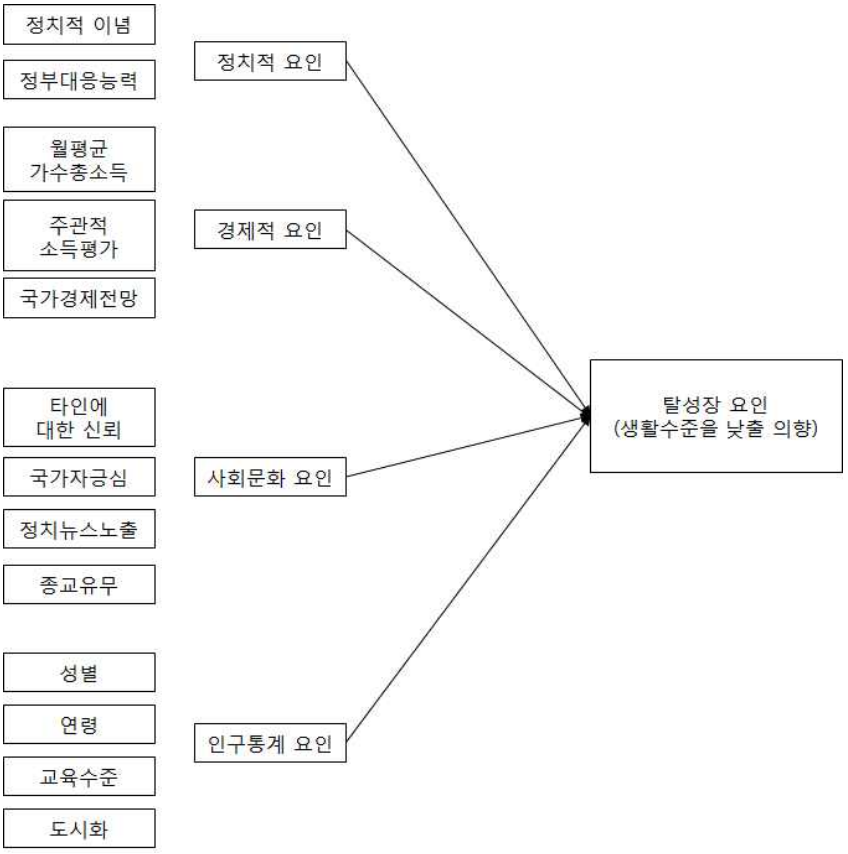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		빈도수	퍼센트(%)	누적(%)
1	전혀 의향이 없다	140	10.23	10.23
2	별로 의향이 없다	367	26.81	37.03
3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286	20.89	57.93
4	약간 의향이 있다	496	36.23	94.16
5	매우 의향이 있다	80	5.84	100.00
합계		1,369	100.00	
비고		평균: 3.006574 / 표준편차: 1.128751		

응답에 대한 평균은 3.006574으로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는 응답으로 해당되는 변수에 대푯값을 보이지만, 전체적인 응답의 분포를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M자형의 응답분포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응답에 대한 극단치의 보기보다는 그 수준이 낮지만 의향의 유무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3번 보기의 경우에는 이에 비해서는 적응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독립변수

강한 탈성장 가치를 지향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는 다음의 4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다음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정치적 요인(정치적 이념, 정부대응능력), 경제적 요인(월평균 가계총소득, 주관적 소득평가, 국가경제전망), 사회문화적 요인(타인에 대한 신뢰, 국가자긍심, 정치뉴스노출, 종교 유무), 인구통계학 요인(성별, 연령, 교육수준, 도시화)



[그림 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

먼저 정치적 요인이 강한 탈성장 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치적 요인에서 첫 번째 변수로 '정치적 이념'을 선정하였다. 해당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사용한 질문으로는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는 해당 문항에 대해 "①매우 진보적", "②다소 진보적", "③중도", "④다소 보수적", "⑤매우 보수적", "(8)모르겠다" 중 하나의 보기를 선택하였다. 1,369개의 응답 중 진보적이라고 생각되는 1번과 2번에 대한 응답을 1번 진보적으로, 3번의 응답은 2번 중도로, 4번과 5번에 해당하는 응답은 3번 보수적으로 다시 코딩하였으며, 응답의 결측으로 해당되는 8개의 응답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치적 요인의 두 번째 변수는 '정부대응능력'으로 자연재해 및 환경관련한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개인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해당하는 문항은 “귀하가 보시기에 아래와 같은 각 위험에 현재 한국 정부가 얼마나 잘 혹은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로, 응답자는 자연재해와 관련한 위험인 홍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나미(지진해일)과 환경 관련 위험인 원전사고(방사능 물질 누출 등),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 등), 자원(물, 에너지 등) 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에 대해 “전적으로 높다”, “상당히 높다”, “다소 높다”, “중립”, “별로 높지 않다”, “거의 높지 않다”, “전혀 높지 않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정부대응능력’ 변수의 경우에는 다른 설명변수와 달리 응답에 대한 값이 높을수록 정부가 위험에 대해 잘못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요인이 탈성장 가치로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기존에 언급되었던 탈물질주의와는 상이한 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탈물질주의의 경우에는 풍요로운 물질적 경험을 선행한 이후에 사회적 존중, 친환경적 행위 등의 비물질적 가치로 전환된다고 보지만, 현재의 물질적 풍요수준이 하락한다는 가정까지는 전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강한 탈성장의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경제적 요인으로서 월평균 가계총소득을 첫 번째 변수로 선정한다. 월평균 가구총소득을 묻는 질문은 “귀댁의 월평균 총소득은 세금공제 이전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귀하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들의 수입을 근로소득, 이자,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혹은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돈 등을 모두 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을 21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을 거부하거나 결측으로 처리된 11개의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개인이 상대적 가계소득을 평가하는 주관적 소득의 경우에는 ‘주관적 소득평가’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질의로는 일반가정의 주관적 소득수준을 묻는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댁의

소득은 평균보다 어느 정도 높거나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사용한다. 응답자는 "평균보다 훨씬 높다", "평균보다 약간 높다", "평균이다", "평균보다 약간 낮다", "평균보다 훨씬 낮다"의 보기에 표기하였다.

마지막 경제적 요인의 변수로는 한국경제전망을 포함하였으며, "귀하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거나 또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훨씬 나빠질 것이다", "모르겠다"로 답할 수 있었으며, 부정응답에서 긍정응답으로 순서를 변환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모르겠다와 결측치를 제외하여 해당변수를 통계분석에 포함하였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탈성장의 지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5가지의 세부변수로 구성하였다: 타인에 대한 신뢰, 국가자긍심, 정치뉴스노출, 종교유무. 먼저, '타인에 대한 신뢰'에 해당하는 질의로는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보기로는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의 3가지 응답이 가능하였다. '타인에 대한 신뢰'변수의 경우에는 신뢰정도와 수준이 응답번호의 경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를 '신뢰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신뢰할 수 있다'의 순으로 다시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자긍심'변수는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의 4개의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응답자는 이 중 1가지를 선택하였다.

'정치뉴스노출' 변수의 경우에는 "귀하는 정치 뉴스나 정보를 얻기 위해 TV나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합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는 "하루에 여러 번",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5~6일”, “일주일에 3~4일”, “일주일에 1~2일”, “일주일에 한 번 미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선택할 수 없다”로 응답할 수 있었다. 해당하는 변수를 부정적 응답에서 긍정적 응답으로 상호교환한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결측치는 제거하여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사회문화적 변수 중 마지막 변수는 ‘종교 유무’로 “귀하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의 응답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종교 없음”, “기타”로 응답이 가능했다. ‘종교 유무’변수는 종교가 없는 경우를 ‘0’으로 처리하였으며, 불교, 개신교, 천주교 및 기타 응답으로서 원불교 등으로 답한 경우를 ‘1’ 처리하여 종교 유무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도시화의 4가지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성별 요인은 기존의 남자=1, 여자=2에 대한 응답을 여자=0, 남자=1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결측치 없이 응답내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무학에서부터 대학원(박사과정)까지의 8점 리커트 척도를 순서대로 사용하였으며, 도시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귀하는 다음 주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서 “큰 도시”, “큰 도시 주변”, “작은 도시”, “시골마을”, “외딴 곳”, “모르겠다”를 사용하였다. 결측치만을 제외하고 전체 분석에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다음 표4는 각 요인별 변수 및 그 값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변수값

변수	항목	변수값
종속 변수	강한 탈성장 지향 (생활수준)	1: 전혀 의향이 없다 2: 별로 의향이 없다 3: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4: 약간 의향이 있다 5: 매우 의향이 있다
정치적 요인	정치적 이념	1: 진보 2: 중도 3: 보수

	정부대응능력 (자연재해/환경)	자연재해 및 환경관련 정부대응능력평가 : 홍수 및 태풍/급격한 기후변동/황사 및 가뭄/지진 및 쓰나미/원전사고/환경오염/자원부족 및 고갈/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1: 전적으로 높다 ~ 7: 전적으로 높지 않다
경제적 요인	월평균 가구총소득	0: 소득없음 ~ 21: 1,000만원 이상(범주화)
	주관적 소득평가	1: 평균보다 훨씬 낮다 2: 평균보다 약간 낮다 3: 평균이다 4: 평균보다 약간 높다 5: 평균보다 훨씬 높다
	국가경제전망	1: 훨씬 나빠질 것이다 2: 다소 나빠질 것이다 3: 마찬가지일 것이다 4: 다소 좋아질 것이다 5: 훨씬 좋아질 것이다
사회 문화적 요인	타인에 대한 신뢰	1: 신뢰할 수 없다 2: 경우에 따라 다르다 3: 신뢰할 수 있다
	국가자긍심	1: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2: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3: 다소 자랑스럽다 4: 매우 자랑스럽다
	정치 뉴스노출	1: 전혀 안한다 2: 일주일에 하루 미만 3: 일주일에 1~2번 4: 일주일에 3~4번 5: 일주일에 5~6번 6. 하루에 한 번 7. 하루에 여러 번
	종교 유무	0: 종교 없음 1: 종교 있음
인구 통계학적	성별	0: 여성 1: 남성
	연령	18세~90세

요인	교육수준	0: 무학 1: 초등(국민)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학(2/3년) 5: 대학교(4년제) 6. 대학원(석사과정) 7. 대학원(박사과정)
	도시화	1: 외딴 곳 2: 시골마을 3: 작은 도시 4: 큰 도시 주변 5: 큰 도시

제 2 절. 자료소개 및 분석방법

1. 자료소개

연구에 사용하는 자료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수행한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2년부터 시행되는 대단위 표본조사로 시카고 대학의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NORC)의 한국모형이다. 현지조사는 2개월간 진행되는데, 주로 6월부터 시작하고 방문자를 직접 찾아 응답내용을 수집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유효표본을 늘리기 위하여 그 크기를 2,500명으로 늘려 사용하고 있다. 표본추출방식은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sampling)을 적용하며, 전체 인구에 비례하여 지역별로 층화집락추출하여 대표성을 높인다(김상욱 외, 2016).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는 6월 21일에서 22일까지 양일간 조사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표집된 유효표본은 1,370명이다. 2014년 조사이후에는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6년 자료까지 공개되었으나, 연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환경 및 탈성장 논의와 관련이 있는 문항이 다수 포진한 것은 2014년 조사가 유일하여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 분석방법

1) 순서형 로짓분석

강한 탈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활용하며, 종속변수에 대한 응답이 일정한 순서를 이루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순서형 로짓모형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통해 획득한 자료에서 필요하지 않은 응답의 부분을 결측으로 제거하고 STATA 15를 사용하여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투입한 이후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통계분석에는 독립변수에 대한 공선성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량의 축소와 변수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인자분석을 실시

한다(이희연, 노승철, 2017). 다만 이 연구의 경우에는 종속변수의 자료가 범주형 자료로서 명목척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따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기존의 선행연구나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다. 필요한 경우 대응일치분석 혹은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자의 방식을 통해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석방법은 순서화 로짓회귀분석이며, 필요한 경우 일반화된 순서형 모델(Generalized Ordered Logit)을 사용한다. 대게 일반최소장승법(OLS)을 사용한 종속변수의 분석은 연속형 자료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와 같이 종속변수가 범주형 자료일 때에는 일반최소자승을 통한 분석을 실시할 경우, 실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대표되는 오류 및 잔차이분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재영, 2009). 순서화된 로짓모형의 경우에는 평행회귀가정(parallel regression assumption)을 따르는데, 이는 종속변수의 값이 m개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m-1번의 로짓을 실시하고, 이 때에 베타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이 연구의 종속변수에서 응답이 가능한 5개의 문항에 대해 설명변수 X의 변화의 영향이 [1. 전혀 의향이 없다 VS. 2. 별로의향이 없다, 3.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4.약간 의향이 있다. 5. 매우 의향이 있다]의 선택이나 [1,2vs.3,4,5], [1,2,3vs.4,5], [1,2,3,4vs.5]까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서형 로짓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평행회귀가정을 검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로 2가지 방식이 검정에 사용된다. 먼저, 'omodel'을 활용한 likelihood ratio test이다. 이에 대한 영가설(null hypothesis)은 로짓모형간(1vs2,3,4, 1.2vs,3,4...) 계수의 차가 없다는 것으로, 순서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가설을 기각하여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어야만 한다. 또 다른 방식의 검정방식은 brant test로,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영가설을 기각하여야만 순서형 로짓을 적용한 통계분석으로의 자료유실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순서형 로짓모형이 통계분석에 사용되는 경우 평행회귀가정이 종종 위반된다(Long&Freese, 2014). 이러

한 경우에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순서형 로짓모델과 별개라기보다는, 기존 순서형 로짓모델이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모형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 모형의 식이다.

$$P(Y_i > j) = \frac{\exp(\alpha_j + X_i\beta_j)}{1 + [\exp(\alpha_j + X_i\beta_j)]}, \mathrm{j} = 1, 2, \ldots, \mathrm{M} - 1$$

[그림 4]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모형 I
출처: Richard Williams(2006)

기존 모형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에 대한 해당 카테고리에 개별 로짓모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차이로는 기존의 평행회귀가정을 완화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PPO: the 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이다. 즉, 부분적으로 비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기존의 독립변수에 모두 적용되었던 가정을 완화하는 반면, 전체 독립변수를 일괄적으로 평행회귀가정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잃게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제공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평행회귀가정을 부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순서형 모형보다는 완화된, 그러나 일반 모형에 비해서는 엄격한 수준에서 통계분석의 결과를 해석하여 독립변수의 효과가 종속변수에 대한 범주구획의 지점변화에 따른 변화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다음 식을 살펴보면, j가 선택할 수 있는 전체 값이 동일한 반면, 그 이외의 변수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즉, x1이나 x2의 베타와 달리 x3의 값은 다른 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Williams, 2016; Williams, 2006). 앞서 언급된, 기존의 순서형 로짓모형이 일반화된 순서형 모델의 특수한 사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P(Y_i > j) = \frac{\exp(\alpha_j + X1_i\beta 1 + X2_i\beta 2 + X3_i\beta 3_j)}{1 + [\exp(\alpha_j + X1_i\beta 1 + X2_i\beta 2 + X3_i\beta 3_j)]}, \text{j} = 1, 2, \ldots, \text{M} - 1$$

[그림 5]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모형 Ⅱ
출처: Richard Williams(2006)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은 McCullagh & Nelder(1989)에 의해 소개된 이후 사용되어 왔다. 기존의 순서형 로짓모형에 대한 분석보다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통계분석에서 종종 사용되지 않았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통계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기능의 향상으로 인해 보다 쉽게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모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3] Stata에서는 gologit2를 사용하여, 분석이 가능하고 언급한 바와 같이 'the proportional odds models'와 'the 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을 동시에 추출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Stata에서의 gologit2 커맨드는 일반모형의 가정을 완화하는 한편 다중분석에서의 비순서형 분석보다는 엄격한 방식의 결과값을 제공한다

2) 유의표집을 통한 인터뷰

탈성장에 대한 연구는 특히 국내에서 논의된 것이 거의 없으며, 특히 관련한 경험적 연구는 국내외에서도 잘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 시도하고 있는 양적분석을 활용한 탐색적 접근은 기존의 논의에서 사회적, 환경적 대안에 대한 변수들을 참고하고는 있지만 이를 해석할 때에 정보가 분절화되거나 단순하게 결과값이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유의표집으로, 연구자가 임의추출한 대상의 인터뷰를 활용하여 탈성장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상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으며,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통계분석과 함께 통합

3) Fu(1998)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이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순서형 로짓모델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평행회귀가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해석의 편의성, 결과값의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은 연구자가 조사목적에 해당하는 대상을 직접 표집하는 연구방법이다. 주로 조사자가 관련 내용 및 모집단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어느 정도 연구내용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편리성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자가 표본을 잘못 선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경우에는 기존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조사자가 탈성장의 맥락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 중 접근성이 있으며, 양적방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나 실제로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였다. 다음 표5는 대면인터뷰에 응한 응답자의 개략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주로 서울내에서 대안적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들로 시민단체의 장이나 종교인, 전력사용을 하지 않는 방식의 삶을 추구하려는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이다. 응답자의 연령은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성비와 탈성장을 구성하는 공동체성, 자립을 통한 의존도 감소, 에너지, 교육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성원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표 5] 대면인터뷰 응답자 정보

코딩	성별	연령대	인터뷰 방식	인터뷰 시간
A	여성	20대 초반	대면인터뷰	39분
B	남성	20대 중반	대면인터뷰	40분
C	남성	30대 후반	대면인터뷰	47분
D	여성	20대 초반	대면인터뷰	32분
E	여성	20대 초반	대면인터뷰	51분
F	남성	30대 후반	대면인터뷰	1시간 30분
G	여성	40대 후반	대면인터뷰	1시간 5분

제 4 장. 탈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분석

제 1 절. 변수의 기술통계

아래 표6은 조사응답자의 특성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총 1,370명의 응답자 중 남성의 수는 655명(47.81)이며, 여성은 715명(52.19)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응답자가 더 많다. 응답자 중 가장 어린 나이의 참가자는 18세이며, 가장 고령의 응답자는 90세이다.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284명(20.73), 30대는 255명(18.61), 40대는 307명(22.41), 50대는 231명(16.86), 60대 이상은 293명(21.39)으로 연령별 응답자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분포는 중졸 이하가 220명(16.06), 고등학교 졸업이 370명(27.01), 전문대학/대학교가 680명(49.64), 대학원 이상의 응답자가 100명(7.30)으로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은 조사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얻고 있는 조사자의 수는 294명(21.63),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은 408명(30.02), 4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은 323명(23.77), 600만원 이상은 334명(24.58)으로 나타났다.

[표 6] 응답자에 대한 기술통계

응답자의 특성		빈도수(명)	비율(%)
성별	남자	655	47.81
	여자	715	52.19
연령	20대 이하	284	20.73
	30대	255	18.61
	40대	307	22.41
	50대	231	16.86
	60대 이상	293	21.39
교육수준	중졸 이하	220	16.06
	고등학교	370	27.01
	전문대학/대학교	680	49.64
	대학원 이상	100	7.30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94	21.63
	200만원~399만원	408	30.02
	400만원~599만원	323	23.77
	600만원 이상	334	24.58

다음으로 표7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별 응답의 분포'는 순서형 변수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별 응답의 분포

변수		환경보호를 위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				
		전혀 의향이 없다	별로 의향이 없다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약간 의향이 있다	매우 의향이 있다
정치적 요인	정치이념					
	1. 진보	57(11.29)	130(25.74)	88(17.43)	195(38.61)	35(6.93)
	2. 중도	36(9.11)	118(29.87)	110(27.85)	115(29.11)	16(4.05)
	3. 보수	46(9.94)	118(25.49)	86(18.57)	184(39.74)	29(6.26)
	정부대응능력	-				
경제적 요인	월평균 가구총소득	-				
	주관적 소득평가					
	1.평균보다 훨씬 낮다	21(12.96)	37(22.84)	36 (22.22)	57(35.19)	11(6.79)
	2.평균보다 약간 낮다	37(10.22)	99(27.35)	86(23.76)	120(33.15)	20(5.52)
	3.평균이다	48(9.21)	158(30.33)	108(20.73)	183(35.12)	24(4.61)
	4.평균보다 약간 높다	32(10.85)	68(23.05)	52(17.63)	123(41.69)	20(6.78)
	5.평균보다 훨씬 높다	2(6.90)	5(17.24)	4(13.79)	13(44.83)	5(17.24)
	국가경제전망					
	1.훨씬 나빠질 것이다	10(20.41)	11(22.45)	7 (14.29)	16(32.65)	5(10.20)
	2.다소 나빠질 것이다	34(10.09)	110(32.64)	65(19.29)	106(31.45)	22(6.53)
	3.마찬가지일 것이다	46(11.00)	104(24.88)	109(26.08)	136(32.54)	23(5.50)
	4.다소 좋아질 것이다	46(9.22)	121(24.25)	94(18.84)	215(43.09)	23(4.61)
	5.훨씬 좋아질 것이다	4(6.35)	20(31.75)	11(17.46)	22(34.92)	6(9.52)
사회문	타인에 대한 신뢰					

화적 요인	1.신뢰할 수 없다	42(15.22)	76(27.54)	64(23.19)	72(26.09)	22(7.97)
	2.경우에 따라 다르다	41(7.40)	154(27.80)	106(19.13)	222(40.07)	31(5.60)
	3.신뢰할 수 있다	57(10.58)	137(25.42)	116(21.52)	202(37.48)	27(5.01)
	국가자긍심					
	1.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6(18.18)	11(33.33)	3(9.09)	10(30.30)	3(9.09)
	2.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25(8.62)	95(32.76)	59(20.34)	99(34.14)	12(4.14)
	3.다소 자랑스럽다	69(10.38)	183(27.52)	155(23.31)	228(34.29)	30(4.51)
	4.매우 자랑스럽다	39(10.29)	78(20.58)	69(18.21)	158(41.69)	35(9.23)
	정치뉴스노출					
	1.전혀 안한다	66(16.62)	103(25.94)	90(22.67)	118(29.72)	20(5.04)
	2.일주일에 하루 미만	13(8.97)	48(33.10)	31(21.38)	50(34.48)	3(2.07)
	3.일주일에 1~2번	11(6.63)	47(28.31)	33(19.88)	65(39.16)	10(6.02)
	4.일주일에 3~4번	9(8.11)	26(23.42)	21(18.92)	48(43.24)	7(6.31)
	5.일주일에 5~6번	3(5.56)	16(29.63)	18(33.33)	14(25.93)	3(5.56)
	6.하루에 한 번	24(7.52)	84(26.33)	59(18.50)	135(42.32)	17(5.33)
	7.하루에 여러번	14(8.00)	43(24.57)	34(19.43)	65(37.14)	19(10.86)
	종교유무					
	0. 종교 없음	67(11.49)	171(29.33)	127(21.78)	182(31.22)	36(6.17)
	1. 종교 있음	72(9.31)	192(24.84)	156(20.18)	309(39.97)	44(5.69)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남성)					
	0. 여성	78(10.91)	190(26.57)	151(21.12)	259(36.22)	37(5.17)
	1. 남성	62(9.48)	177(27.06)	135(20.64)	237(36.24)	43(6.57)
	연령	-				

	교육수준					
	0.무학	10(30.30)	9(27.27)	9(27.27)	4(12.12)	1(3.03)
	1.초등(국민)학교	16(15.53)	28(27.18)	24(23.30)	30(29.13)	5(4.85)
	2.중학교	19(22.62)	22(26.19)	16(19.05)	22(26.19)	5(5.95)
	3.고등학교	39(10.54)	83(22.43)	89(24.05)	142(38.38)	17(4.59)
	4.전문대학(2/3년제)	19(10.33)	61(33.15)	29(15.76)	65(35.33)	10(5.43)
	5.대학교(4년제)	30(6.06)	135(27.27)	103(20.81)	194(39.19)	33(6.67)
	6.대학원(석사과정)	6(7.41)	25(30.86)	11(13.58)	32(39.51)	7(8.64)
	7.대학원(박사과정)	1(5.26)	4(21.05)	5(26.32)	7(36.84)	2(10.53)
	도시화					
	1.외딴 곳	2(22.22)	3(33.33)	1(11.11)	3(33.33)	0(0.00)
	2.시골마을	20(14.49)	32(23.19)	37(26.81)	41(29.71)	8(5.80)
	3.작은 도시	55(12.28)	109(24.33)	104(23.21)	159(35.49)	21(4.69)
	4.큰 도시 주변	37(10.14)	104(28.49)	65(17.81)	134(36.71)	25(6.85)
	5.큰 도시	26(6.36)	119(29.10)	79(19.32)	159(38.88)	26(6.36)

제 2 절.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

탈성장 요인으로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로짓모형분석을 실시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서형 로짓모형의 평행회귀가정의 위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brant test를 통해 검정한다. 표8은 독립변수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에 대한 검정결과를 보여준다.

[표 8] 독립변수에 대한 brant test 결과

	chi2	p>chi2
정치이념	0.33	0.955
정부대응능력	14.23	**0.003**
월평균 가구총소득	6.6	0.086
주관적 소득평가	5.98	0.112
한국경제전망	4.85	0.183
타인에 대한 신뢰	7.29	0.063
국가자긍심	6.06	0.109
정치뉴스노출	0.9	0.826
종교유무	2.46	0.483
성별(남성)	1.01	0.799
연령	3.32	0.345
교육수준	4.47	0.215
도시화	4.13	0.248

brant test를 실시한 결과, 영가설인 '로짓모형간 계수의 차가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0.05%수준에서의 검정에서 '정부대응능력(0.003)'만이 평행회귀가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분석에 따라, 전체 설명변수에 대한 순서형 로짓모형을 공통으로 적용하되 정부대응역량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응답수준 및 유의도에 따라 분석을 따로 실시한다. 다음 표9은 탈성장 요소로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전체 설명변수를 투입한 순서형 로짓분석과 일반화된 순서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표 9] 순서형 로짓모델/일반화된 순서형로짓모형 결과

	순서형 로짓모델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모형			
	Odd Ratio	**Std. Err.**	**[95% Conf. Interval]**		**Odd Ratio**	**Std. Err.**	**[95% Conf. Interval]**	
정치적 이념	.9913396	.0615072	.8778292	1.119528	.9959769	.0618824	.8817837	1.124958
정부 대응역량	.9813686 ***	.0066712	.9683801	.9945313	1.004248	.0125119	.9800222	1.029073
					.9882531	.0113669	.9662236	1.010785
					.9671706 ***	.0120878	.9437668	.9911548
					.9655819 **	.0172088	.9324357	.9999065
월평균 가구 총소득	1.008195	.011254	.9863774	1.030496	1.007946	.0112417	.9861513	1.030221
주관적 소득평가	.9571799	.058297	.8494761	1.078539	.9553105	.0581934	.8477993	1.076455
한국 경제전망	1.103166 *	.0622816	.9876079	1.232246	1.104576 *	.0623589	.9888736	1.233815
타인에 대한 신뢰	1.022404	.0705445	.8930813	1.170454	1.021356	.0705512	.8920307	1.169432
국가자긍심	1.3319 ***	.0985204	1.152149	1.539696	1.335843 ***	.0986374	1.155855	1.543858
정치 뉴스노출	1.066959 ***	.0252448	1.01861	1.117603	1.067108 ***	.0252474	1.018753	1.117757
종교유무	1.208261 *	.1259591	.9849738	1.482167	1.217297 *	.1270665	.9920755	1.493649
성별(남성)	.9525061	.0986499	.7775168	1.166879	.9586294	.0993588	.7823959	1.174559
나이	1.01062 ***	.0037094	1.003375	1.017916	1.01061 ***	.003718	1.003349	1.017923
교육수준	1.228483 ***	.0573778	1.121018	1.346249	1.237831 ***	.0579691	1.129272	1.356826
도시화	1.039757	.0559704	.935646	1.155453	1.042278	.0562463	.9376667	1.15856
/cut1	.1527887	.4277502	-.6855863	.9911637				
/cut2	1.852415	.4269636	1.015582	2.689248				
/cut3	2.736079	.4303249	1.892657	3.5795				
/cut4	5.281419	.4513391	4.396811	6.166028				
	Number of obs = 1,333 LR chi2(13) = 82.67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0214 Log likelihood = -1886.7299				Number of obs = 1,333 LR chi2(16) = 96.14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0249 Log likelihood = -1879.9926			

분석된 순서형 로짓모형과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유의한 변수나 그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짓모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정부대응능력'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모형의 분석결과를 적용한다. 전체적으로 종속변수인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대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이는 변수로는 '한국경제전망(OR=1.103166, 90%, CI: 0.9876079, 1.232246)', '국가자긍심(OR=1.3319, 99%, CI: 1.152149, 1.539696)', '정치뉴스노출(OR=1.066959, 95%, CI= 1.01861, 1.117603)', '종교유무(OR=1.208264, 90%, CI=0.9849738, 1.482167)', '나이(OR=1.01062, 95%, CI:1.003375, 1.017916)', '교육수준(OR=1.228483, 99%, CI: 1.121018, 1.346249)'이 있다.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정부대응능력(부족)' 변수가 유일하고 OR값은 0.9813686이며 95%수준에서 0.9683801부터 0.9945313의 신뢰구간을 가진다. 예상과 달리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는 '정치적 이념'과 소득변수('월평균 가구총소득', '주관적 소득평가')가 있다. 정치적 이념의 경우에는 기존 탈물질주의 혹은 친환경적 인식 및 행동과 진보적 성향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와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2개의 소득변수의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에 도달하는 경우에 '탈물질'화 하거나 보다 친환경적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와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유의한 변수의 분석 및 인터뷰 내용을 고려하면서 살펴본다.

제 3 절. 요인별 분석결과

분석의 순서는 각 요인별로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종속변수인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대한 응답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고려하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10은 표9에서 유의한 변수만으로 다시 구성한 것이다.

[표 10] 순서형 로짓모형(유의한 변수)

	순서형 로짓모델			
	Odd Ratio	**Std. Err.**	**[95% Conf. Interval]**	
정부대응역량	.9813686 **	.0066712	.9683801	.9945313
한국경제전망	1.103166 *	.0622816	.9876079	1.232246
국가자긍심	1.3319 ***	.0985204	1.152149	1.539696
정치뉴스노출	1.066959 **	.0252448	1.01861	1.117603
종교유무	1.208261 *	.1259591	.9849738	1.482167
나이	1.01062 **	.0037094	1.003375	1.017916
교육수준	1.228483 ***	.0573778	1.121018	1.346249

정치적 요인 중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었던 정치적 이념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존의 환경에 대한 우려나 친환경적 행위가 진보적 정치이념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 중에서 Stefano. B. Longo & Joseph O. Baker(2014)는 경제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사이에 관계에 주목하면서, 특히 보수적 이념을 지닌 경우에는 현재 혹은 미래의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친환경적 태도를 잘 보이지 않는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Aaron M. McCright & Riley E. Dunlap(2000)의 경우에는 보수주의자들의 행태가 지구기후변화문제에 대한 합의 및 조치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유사한 주장으로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으로서 정의된 탈성장 요인과 관련한 이 연구에서는 왜 정치적 이념이 양(+) 혹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Stefano. B. Longo & Joseph O. Baker(2014)가 가정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경제적 이념 혹은 상황에 따른 민감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영향이 곧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논의에 맞추어 설명변수 중 '정치적 이념'과 '한국경제전망'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의 표11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향후 한국의 경제상황을 전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정치이념이 보수적일수록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 높다기보다는, 진보적일 경우에 '다소 좋아질 것이다' 혹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와 같은 긍정적 답변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한국경제전망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가치를 지닌 개인들이 구분되는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 11] 정치적 이념(진보적/보수적)에 따른 한국경제전망 분포

	한국경제전망					
	훨씬 나빠질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	계
진보적	27	156	134	166	21	504
보수적	12	90	132	197	33	464
합계	39	246	266	363	54	

그렇다면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현재의 경제상황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탈성장 요인에 부합하는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추측해본다면 기존의 좌파성향의 이념을 가진 개인이나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혹은 성장담론에서 성장에 대한 강력한 옹호의 입장을 보였던 것과 같이, 경제적 후퇴에 있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요인 중 정부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95%수준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즉, 자연재해나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이 높지 않다고 평가할수록, 개인은 탈성장 요인으로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0.98배(OR=0.9813686)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환경적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는지가 개별 구성원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가 자연재해나 환경오염 등과 같은 위험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속한 개별 구성원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높이면서 개별적으로 이에 적응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통계분석에 활용되는 원자료가 수집된 2014년도 초는 국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이슈가 발생하였다. 1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특히 4월에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여 여론에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전 국민들이 '정부의 대응'이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요인 중 정부대응능력은 개인수준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데에 있어서 역의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혹은 정부가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생활수준을 낮추는 데에 수반되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와 반대로 정부가 위기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이를 판단하고 조취를 취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추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 및 환경적 이익을 기다릴 의향이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정부대응역량' 변수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표14은 변수에 대한 응답구간변화에 따른 Odd ratio의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gamma3과 gamma4의 경우에는 9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유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의 대응수준이 낮다고 평가할수록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적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응답수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문항에 대한 보기로서 "전혀 의향이 없다", "별로 의향이 없다",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에 대한 응답은 설명변수인 정부대응능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지라도 종속변수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약간 의향이 있다" 혹은 "매우 의향이 있다"의 수준에서의 응답자가 선택할 확률은 정부의 대응능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에는 유의한 수준에

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즉,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유의한 응답분은 주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있다는 응답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승산비가 점차 1보다 낮아지는 것을 보면 정부가 자연재해나 환경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정부대응능력에 대한 일반화된 순서형 로짓분석결과

	Odd Ratio	Std. Err.	[95% Conf. Interval]	
Beta	1.004248	.0125119	.9800222	1.029073
Gamma_2	.9882531	.0113669	.9662236	1.010785
Gamma_3	.9671706 ***	.0120878	.9437668	.9911548
Gamma_4	.9655819 **	.0172088	.9324357	.9999065

다음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요인에 속하는 3개의 변수(월평균 가구 총소득, 주관적 소득평가, 한국경제전망) 중 유일하게 유의한 수준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한국경제전망'뿐이다. 앞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소득변수는 객관적 지표(월평균 가구 총소득)나 주관적 인식(주관적 소득평가)에서 모두 유효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이는 기존의 친환경적 혹은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기본 가설로 삼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결정적이다. 즉,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기존의 물질주의적 삶에서 벗어나 보다 친환경적이며 탈물질주의적 경향을 보인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을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경제적 소득이 탈성장에 부합하는 가치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선택이 사회구조 및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와 같은 소득변수의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국내에서의 탈성장 변수로서의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영향을 주는 다른 배경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소득변수가 탈성장의 맥락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과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가정하는 '높은 소득과 친환경적 태도 혹은 비물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뿐 아니라 '여전히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을 낮출 의사가 있거나 '높은 소득'에도 지금까지의 경제적 부 혹은 높은 수준의 생활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설은 연구자가 표집한 탈성장맥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터뷰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응답자들은 현재와 같은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반'이나 현재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성향이 부모와 자녀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와 자식간의 문화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 이유가 있다.

(연구자) 이런 활동을 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응답자 B) 이걸 배우는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만약에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것을 배울 수 있을가라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연구자) 현실적으로는 생활하는데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응답자 F) 집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목사라고 해봐야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얼마나 많겠어요...**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주거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저희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것의 기반위에 서 있는거죠.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걸 시도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 특히 경제적 지원은 기존의 가치가 유지되는 소위 '주류'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에 대항하는 '대안적'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응답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가치의 인

식과는 어느 정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어느 정도의 태도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소득 정도가 유효하지 않은 설명변수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뿐 아니라, 애초에 경제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수준과 차이를 보이거나(응답자D) 경제요인이 분리되어 작동하는 경우(응답자G)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으로서 노동이나 이윤추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혹은 무관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응답자G의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왜 돈을 받느냐"는 다소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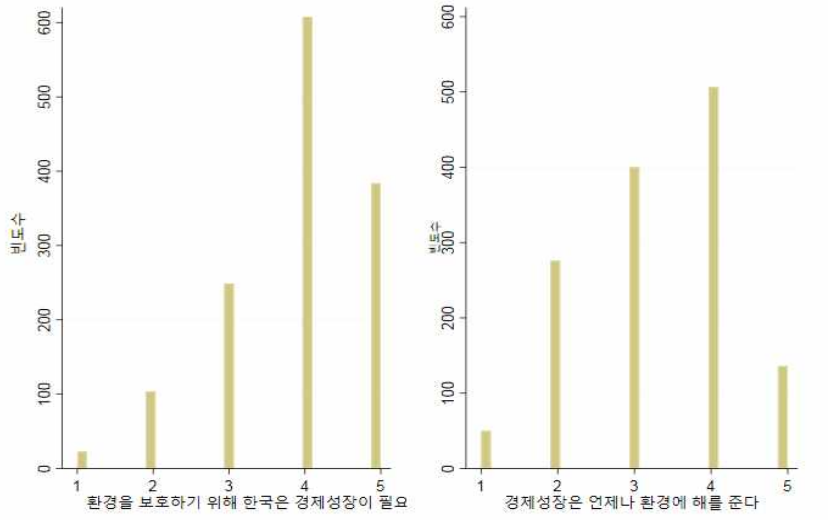
(연구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그럼 어떤 것을 하셨어요?

(응답자 G) ○○○에서 간사를 했는데 6만원 받았나? 졸업하자마자 우리 조직에서 간사로 임용이 되었거든. 6만원 줄거라고. **그래서 돈 안 받고 일하고 싶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왜 돈을 받으면서 하냐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타 쓴 거지.** 사람마음이 그런데 간사한 게 한 달에 6만원 받으니까, 그 다음 달은 왜 빨리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 철이 없어, 성격이야.

(응답자 D)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안전하고, 안전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 같아요.

경제적 요인과 자신의 생활수준간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의 소득과 사회환경적 문제간의 관계를 얼마나 교환(trade-off)적 관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환경과 사회(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2개의 질의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와 "경제성장은 언제나 환경에 해를 준다"에 대한 5점 척도의 응답(매우 동의, 약간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약간 반대,

매우 반대)을 살펴본다. 개인으로서 환경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환경-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묻는 문항의 응답 분포

그림 6은 환경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질의내용에 대한 응답수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왼쪽에 위치한 응답분포의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인데, 먼저 환경보호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으며, 둘째로는 이를 위한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생태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며, 조사가 진행된 시기인 2014년의 박근혜 정권과 그 이전의 이명박 정권에서 경제활성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강조한 녹색성장의 여파로도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오른쪽에 위치한 히스토그램의 경우에는 사회 및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질의내용과 내용상 배치되는 지점이 발생함

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형태의 응답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제시된 응답과 두 번째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본다면, 국내에서의 응답자들은 사회 및 환경에 대한 관계에서 환경보호의 필요성, 즉 문제가 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사실인식이나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다. 반면 월평균 가구총소득이나 주관적 소득평가와 같이 개인단위의 경제적 요인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비해, 이후 해석되는 정부 혹은 국가단위의 '한국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나타내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점 또한 흥미롭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하겠다.

주목할 것은 경제적 요인 중에서 '한국경제전망'만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과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방향에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전망에 대한 승산비가 1.103166으로, 개인이 국내의 향후 경제전망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수인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을 선택할 확률이 1.1배(10%)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상황이 향후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에 개인들은 경제적 여유를 기반으로 하여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 소득이 높아감에 따라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수준에서의 소득이나 타집단에 비해 자신이 얻는 소득이 높다는 인식과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의 경제성장이 충분한 상태로 도달할 경우에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 국민이 '국가', '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즉, 경제적 조건의 충족이 곧바로 탈성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탈물질주의나 친환경적 생활방식 등과도 구별된다. 이는 동일한 경제적 요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개인이 절대적으로 버는 수입의 양인지, 상대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인지, 국가 수준에서의 경제상황을 인지하느냐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

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기존의 사회구조적 변화나 환경정책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비용지출이 높은 반면, 그 효과가 늦고 불확실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Mark Andor et al.(2018)의 연구에 따르면, 이같은 시차로 인한 경제적 요인의 영향은 나이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동인이 부족하며, 이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인생계획이 젊은 사람에 비해 짧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면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분석에서 연령에 따른 종속변수의 선호내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변수(타인에 대한 신뢰, 국가자긍심, 정치뉴스노출, 종교유무)이다.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만이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외의 국가자긍심, 정치뉴스노출빈도나 종교의 유무가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대해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인에 대한 신뢰’ 변수가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그 이유가 보다 이타적인 이유에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회구성원을 존중한다거나 믿을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질문은 개인이 생활수준을 낮추는 탈성장에 대한 가치와 타인에 대한 신뢰간의 유의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일방적으로 ‘나’로부터 타인에게로의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타인에 대한 신뢰는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쌍방이나 개인과 집단간의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대상자들이 외부로부터 어떤 방식으로의 인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집중하여 살펴본다. 응답자 E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참 진짜 싫었는지 많이 잊기도’ 할 정도로 당시를 회고하는 것을 어려워하면서도 당시에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떨어질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고 회상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응답자E에게서만 확인되는 것

은 아니었다. 응답자B 역시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들이 주위 친구로부터 '놀림감'이 되기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놀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응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위에 있는 부모와 친구들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시 다수의 삶으로 복귀하기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응답자 B),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흔들림'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하였다(응답자 A).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뷰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은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위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다른 방식의 '인정' 혹은 '허가'를 득하고자 한 것이다.

(응답자 E) **그 과정이 참 진짜 싫었는지 많이 잊었는데. 떠올려보면 어쨌든 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이후에 그냥 복학을 했거든요.** 그냥 다니는 결정을 했는데 몸이 확확 안 좋아졌어요. **그때가 친구들이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가는 시기였어요. 안정적 길을 찾아가는데** 나는 하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확신도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굶어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어디에 떨어지게 되지. 사실 무섭잖아요.** 공교육 받으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삶의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졸업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친구들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가는 것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뭐 할거야?' 묻는 것만으로도.**

(응답자 B) (친구들이) 너는 스펙 열심히 쌓았는데 왜 너는 이상한 것을 하고 있냐. 농사를 짓는다니. 애들이 생각하는 1,000평, 2,000평 생각하는 초고속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건축은 또 일반건축이 아니고 하니까. **놀림거리인거에요. 놀이하고 있다고.**

(연구자) 그럼 지금은 어떤 걱정 같은 것이 좀 있나요?

(응답자 B) **사실 주변에 걱정이 더 많아요. 부모님은 사실 그냥 너 해보고 싶은 것을 해라 하면서도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니 대학**

원에 가지 않을래....너는 4년동안 ○○○○를 배웠는데 왜 이걸 하냐. 그걸 해가지고 먹고살기 힘든데. 왜 이것저것 하냐,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이야기하세요...**내가 이 삶으로 온전하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응답자 C) 저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와서는 대안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다른 것이 있다는, 그런 힘들다고 하는 이 사회에 대비해서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연구자) 그럼 학교를 그만둘 것까지는 없고 휴학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응답자 A) 엄마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우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휴학을 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도피할 것 같은거에요. 이것도 안 되고 그냥 다시 학교에 가야지. 그래서 아예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흔들릴까봐.**

통계분석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모두 고려해볼 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정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자신에 대한 타인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무조건적으로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이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만을 무조건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대안적인 방식으로서 활동하면서 자신을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관계를 구축해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은 그 이행과정에서 쉽고 혹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변화하면서(응답자 D),

일정한 통과의식(지점)을 거치고, 주위에서의 인식이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연구자) 이제는 사회로 나왔으니까 주위에서 더 불안하게 바라보지는 않나요?

(응답자 D) 그런데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바뀐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 시점에 오히려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저를 아는 분들은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8-9년전 그때는 대안학교라는 것이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 장애인들이 가는 학교,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는 어떤 면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신뢰를 받음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 특히 탈성장과 같이 비주류적인 방식으로서의 실천은 현실에서의 어려움이 분명히 예측되고, 외부의 시선이 '실천의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다시 '충전'시키는 것 또한 타인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응답자 F는 '뜻이 맞는 동지'를 만나는 것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결국은 신뢰라는 것이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로서만이 제대로 읽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 탈성장, 기독교 운동을 하시는데 하다보면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응답자 F) **많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주위의 시선이나 반대에 부딪히면 내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고 내가 하는 활동이나 실천의 동력을 많이 상실을 해요...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방법은 역시 동지. 뜻을 만나는 동지를 만날 때 충전이 되요.** 만약에 저 혼자 했으면 힘들었을텐데, 아내가 있으니까 저는 충전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로 고맙게 생각해요.

국가자긍심의 경우에는 사회문화적요인 중에서 승산비(1.3319)가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교유무(1.208261)와 정치뉴스노출(1.066959)의 순이었다. 국가자긍심의 경우에는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며, 그 수준도 높았다. 가설의 근거는 기존의 국가중심의 경제개발 및 사회정책이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별로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인한 빈부의 갈등 등의 문제가 차별적으로 부각된다는 점을 염두하였다. 즉, 탈성장요인으로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기존의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혹은 자긍심과는 반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는 국가자긍심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수에 대한 선택을 할 확률이 약 1.33배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석해보면, 이 연구에서 기존에 가설로 설정한 독립변수와의 관계가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나 애국심은 한국의 경우에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방과 함께 찾아온 전쟁 이후에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통한 '가장 극빈한 국가'에서 현재는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변화했다는 자부심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권위주의 정권이 쿠테타 등으로 획득하지 못한 비가시적인 정당성을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획득하려고 시도하였다. 당시의 빈곤한 삶은 국민들에게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전을 다른 모든 가치에 비해 월등한 절대적 권위로 만들었다(Yun, 2001). 이러한 흐름은 현재까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성장에 대한 가치부여는 사회적, 생태환경적 위기상황에서의 해법제시에 있어서도 발견된다. 반면,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별개로,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나 급격한 경제성장시기의 불균등한 자원의 배분 혹은 기회의 박탈은 기존의 성장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게 유도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제적 부피에 비해 이러한 과정을 결정하는 체계가 그와 부합하는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쇠퇴가 결국에는 경제성장의 순익이 특정 계층에게만 분배되거나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다(김태균, 2016) 따라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대한 국가자긍심의 영향을 살펴본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경제)성장이 중대한 목표에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

이 자신의 생활수준과 감정적으로 가깝게 일치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경우에도 자신을 결합하여 생활수준을 낮출 의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탈성장 혹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이유가 국가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환경문제에 대응한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조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국가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조치로서 종속변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했다고 간주해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정치뉴스에 대한 노출정도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본다. 정치뉴스는 사건, 사고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문제상황이 되는지의 프레임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나, 결국에는 개인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첫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내용과 일치한다. 정치뉴스에 대해 개인이 노출되는 정도가 클수록 탈성장 요인으로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약 1.07배의 확률로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교육수준과 연결지어 생각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간혹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실천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개인이 보다 탈성장으로 이행할 수 있게하는 긍정적 작용을 한다. 이러한 결과를 탈성장 논의에 비추어보면, 현재 탈성장 담론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고 경제성장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탈성장'연구와 적용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성장주의에서 벗어난 탈성장의 관점에서 사회적 연대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담론이 숙고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 중 마지막은 개인이 속한 종교가 있는지의 여부가 탈성장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분석결과, 개인이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가 없는 것에 비해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서 긍정적 답변을 할 확률이 약 1.21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종교가 단순히 무엇을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

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규범(norms)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종교의 '유무'로 판단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혹은 신념과 종교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면접조사에 응한 목사인 응답자 F의 경우에는 기존의 교회가 '노골적으로 성장주의'에 경도되면서 '본질이 전도'되는 경험이 탈성장적 삶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밝혔다. 즉, 단순히 종교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 생활방식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종교의 신념이 개인행동에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응답자 F) 첫 번째로 **성장관련해서는 그 교회에서는 노골적으로 성장주의를 지향해요. 신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이고...여러분의 자녀를 여기 교회학교에 보내면 글로벌 리더로 만들 수 있습니다....그게 학부모들에게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는거에요.** 교회에 오면 영어를 가르쳐준다, 뭐를 가르쳐준다 이런 식으로요. **본질이 전도된거죠.**

반면 종교를 단일한 하나의 집합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종교를 세분화하여 그 특징이나 차이를 이해할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한다(Tremblay Jr. & Dunlap, 1977). 다음 표13은 각 종교별 종속변수에 대한 응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것으로, 원불교(2명), 국제창가학회(1명), 도교(1명), 민속신앙/무속(1명)은 값이 지극히 작아 결과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있다는 응답의 종교별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신교가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천주교와 불교순이었다. 대체로 중립의견의 비중이 세 종교에서 비슷한 점을 고려해보면, 불교의 경우에는 특히 '전혀 의향이 없다'의 응답은 기존 공생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표 13] 종속변수에 대한 종교변수(3)의 응답분포

종교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					계
	전혀 의향이 없다	별로 의향이 없다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약간 의향이 있다	매우 의향이 있다	
불교	37(12.89)	82(28.57)	60(20.91)	96(33.45)	12(4.18)	287
개신교	23(6.99)	79(24.01)	63(19.15)	139(42.25)	25(7.60)	329
천주교	12(7.89)	30(19.74)	31(20.39)	73(48.03)	6(3.95)	152
계	72(9.38)	191(24.87)	154(20.05)	308(40.10)	43(5.60)	768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변수인 ‘성별(남성)’, ‘나이’, ‘교육수준’, ‘도시화’가 종속변수인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대한 응답을 선택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를 확인한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성별(남성)’과 ‘도시화’변수로 성별이나 도시화 정도의 차이가 탈성장 지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유의한 변수들은 모두 탈성장 지향에 대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승산비(1.228483)가 나이변수(1.01062)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남성)변수와 도시화의 정도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에 환경인식 및 행위와 특정 성별간의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나이 변수의 경우에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탈성장변수로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적 태도나 탈물질주의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 연구의 결과로는 젊은 층일수록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젊은 층의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기도 하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설명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나이가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이전의 시기를 생활하면서 열악한 수준에서의 생활방식이 체득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활수

준을 줄이면서 보다 친환경적인 행위를 하는 데에 망설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보호나 자연의 가치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탈성장 연구의 경우에는 연령변수가 특수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변수의 경우에는 1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1.23배의 확률로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대한 긍정적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무학에서 대학원(박사)까지의 변화가 “전혀 의향이 없다”에서 “매우 의향이 있다”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사회문화적 요인 중 (정치)뉴스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증가에 대한 종속변수의 영향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현 사회에 대한 문제상황 혹은 행동을 통한 실천방안의 제시 등과 같은 정보제공이나 학습이 탈성장 요인으로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존의 ‘교육수준’으로 구분되는 대학교, 대학원 혹은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에도 탈성장의 맥락에서 이행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대면인터뷰조사를 통해서 확인된다. 응답자A는 대학교를 자퇴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다시 대학교를 다닐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학교 대신 “사람이나 단체”를 선택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응답자D는 기존의 학교를 통한 교육, 혹은 기술의 체득을 ‘증명’하는 자격증보다는 ‘해보는 것’을 통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자) 그럼 혹시 앞으로 대학교를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응답자 A)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제 학교에서는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되죠. 그런 단체를 찾거나.**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에너지를 들이는 것보다 거기서 배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응답자 D) **해보는 거에요.** 그것이 되는 과정을 겪고 일로 만드는 것인데. 적성이나 자격증을 따야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설명변수의 마지막은 도시화 정도이다. 순서형 로짓분석의 결과로 도시화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는 사회공간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히 성장과 관련해서는 대기질의 문제나 환경적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적 태도, 환경적 우려나 사회적 문제에 관심과 도시화의 정도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의 도시화 요인이 효과적인 독립변수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도시와 대비되는 교외 혹은 시골지역에 대한 공간적 이해가 상이할 수 있다. 이는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지역적 공간 혹은 도시화에 대해 시골출신의 응답자A, 과거 회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응답자C, 그리고 대안학교를 오래 다녔던 응답자D가 각기 다른 수준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응답자 A의 경우에는 자신이 생활했던 지역을 벗어나 서울에 대한 '판타지'로 편입되기를 희망하였다. A에게 지방생활은 '계속되는 사이클'이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는 곳', 무엇보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장소였다. 반면 응답자B가 생각하는 적합한 도시화의 공간은 '교외지역'이었다. 교외는 완연한 도시와 시골(산촌)의 중간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심리적 완충지대이기도 하다. 즉, B는 자연을 즐기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또 자신이 향후 하게 될 사업의 수요층이 밀집된 공간의 인접성으로서 도시를 이해하고 있었다.

(응답자 A) 대학에 가는 과정이 이상한데 서울에 너무 오고 싶은거에요. **서울이라는 곳은 문화도 풍부하고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 그런 판타지가 있었거든요. 그 건더기가 대학이에요....**

(대학에 왔는데) 너무 노잼인거에요. 처음에는 룸메이트 생활을 했는데 너무 닭장같고 너무 별로인거에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서울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거에요.** '이게 아니구나'라고 느꼈지만, 용돈을 부모님들한테 받고 이러니까 대학을 그냥저냥 다녔던 것 같아요.

(연구자) 시골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방생활은 어땠나요?

(응답자 A) 너무 계속 도는 사이클? 똑같은 기분?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닌데, 아침 먹고, 학교 가고, 놀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집회있을 때 나갈 수 있고. 이런 ○○같은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내가 우크렐레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오면 되는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방에는. '나 같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을 만들려면 서울에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 교외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응답자 C) 제가 자연에서 좀 해소되는 것이 있고요...일단 도시안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게 너무 힘들겠다. 생활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있고....그런데 산촌쪽으로 너무 가면 아직은 제가 **인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 주변인들이 도시에 있기도 하고 도시에 많은 고객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교외는 가까운 거리니까 부담이 덜할 수 있겠다.

(응답자 D씨) 교외지역/시골 지역의 공간에 대한 인식차이

도시에서는 뭐든 것을 **돈으로 살수밖에 없는데** 시골은 물자가 너무 많은거에요. **비어있는 공간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사지않아도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지출을 줄이면서도 가능한 삶을 연구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 도시화의 요소가 설득력을 갖지 못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중앙집중적 권위를 지닌 대규모 도시와 지방에 위치한 외진 지역 간의 차이가 '생각보다' 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응답자 A가 밝히는 것과 같이 '맛집을 보면 다 서울'이거나 '데이트 장소도 부산'인 경우가 대중매체에 빈번히 등장하기도 하고, 도시와 지역간 불균형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시에서의 삶의 편리를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자)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었나요? 도시로, 도시로?

(응답자 A) **핸드폰을 보면서 맛집을 보면 다 서울이잖아요. 우리도 맛집을 가려면 서울에 가야한다. 데이트 장소도 부산, 이러니까.** '대도시를 가야지, 우리가 좀 더 클 수 있는 우리의 견문이 넓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해본 거죠....와보니까 왜 오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느꼈어요. 서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르겠구나라고. 이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모르겠구나.

그러나 가장 비싼 지대에 위치한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외진 산골에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미 중앙집중적 시스템이 주변부를 모두 포섭하여 단일한 시스템으로서 '소화'되고 있지는 않는가? 황진태(2018)는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물리적 속성에 주목한 'city'와 이를 벗어난 스케일간 상호작용으로서의 'urban'를 활용한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의 개념을 소개한다. 행성적 도시화는 생물과 같아서 도시의 집중화(concentrated urbanization)와 팽창적 도시화(extended urbanization)가 들숨과 날숨처럼 동시간 반복된다(황진태, 2016). 도시(city)는 지리적 연결을 기반으로 자신이 필요한 혹은 다른 지역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에너지와 물자를 조달하면서 인구와 재원을 집중시키는 반면, 한편으로는 그 영향력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외진 지역이라 할지라도 "수도권 접근이 '수월'"할 뿐 아니라 특정한 메가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평창행 KTX 하루 32회 운행"될 수 있는 것이다(뉴스1,

2018.02.15.; 한국일보, 2018.01.23.).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물리적 영역으로 구분한 도시화의 정도가 '외딴 곳', '시골마을'. '작은 도시', '큰 도시 주변', '큰 도시'의 순으로서 종속변수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숙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탈성장 사회로의 경로에서 지역화의 강조라는 것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Jin Xue, 2014; Fotopoulos, 2007; Trainer, 2012). 이는 특히 탈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개념으로서 분산의 개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의 삶을 구성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임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제 4 절.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예측

다음은 추정된 각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예측값을 정리한 표이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전망에 대한 1단위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응답자는 자신이 기존에 선택한 보기에서 '전혀 의향이 없다'을 선택할 확률이 -.0084321이며, '별로 의향이 없다'의 경우에는 -.0143119,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의 경우에는 -.0011541, '약간 의향이 있다'의 경우에는 .0189268, '매우 의향이 있다'의 경우에는 .0049713의 값을 갖는다. 각 보기에서의 값을 모두 더하면 (-.0084321-.0143119-.0011541+.0189268+.0049713=0) '0'이 된다. 이는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해당 독립변수의 값이 변화할 경우의 종속변수의 보기선택에 있어 전체 확률의 증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14]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예측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		dy/dx	P>z	Std. Err.
1. 전혀 의향이 없다 (Pr(1)=0.09488284)				
	정부대응역량	.0016152	<0.01	.00059
	한국경제전망	-.0084321	<0.1	.00487
	국가자긍심	-.0246138	<0.01	.00648
	정치뉴스노출	-.0055661	<0.01	.00206
	종교유무	-.0164435	<0.1	.00922
	나이	-.0009072	<0.01	.00032
	교육수준	-.0176724	<0.01	.00415
2. 별로 의향이 없다 (Pr(2)=0.26963811)				
	정부대응역량	.0027414	<0.01	.001
	한국경제전망	-.0143119	<0.1	.00826
	국가자긍심	-.0417773	<0.01	.01099
	정치뉴스노출	-.0094474	<0.01	.00348
	종교유무	-.0275182	<0.1	.01518
	나이	-.0015398	<0.01	.00054
	교육수준	-.0299955	<0.01	.00697
3. 의향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Pr(3)=0.21671971)				
	정부대응역량	.0002211	<0.1	.00013
	한국경제전망	-.0011541	0.172	.00085
	국가자긍심	-.0033689	<0.1	.00179
	정치뉴스노출	-.0007618	<0.1	.00045
	종교유무	-.0019474	0.155	.00137
	나이	-.0001242	<0.1	.00007
	교육수준	-.0024188	<0.05	.00123
4. 약간 의향이 있다 (Pr(4)=0.3652654)				
	정부대응역량	-.0036254	<0.01	.00132
	한국경제전망	.0189268	<0.1	.0109
	국가자긍심	.0552485	<0.01	.01442
	정치뉴스노출	.0124937	<0.01	.00459
	종교유무	.0364394	<0.1	.02009
	나이	.0020363	<0.01	.00071
	교육수준	.0396677	<0.01	.00913
5. 매우 의향이 있다 (Pr(5)=0.05349394)				
	정부대응역량	-.0009522	<0.01	.00036
	한국경제전망	.0049713	<0.1	.00289
	국가자긍심	.0145116	<0.01	.00398
	정치뉴스노출	.0032816	<0.01	.00123
	종교유무	.0094697	<0.1	.00523
	나이	.0005349	<0.01	.00019
	교육수준	.0104191	<0.01	.00255

제 5 장. 탈성장의 모습과 연구에서의 발견

이 장에서는 앞선 통계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평가와 유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탐색이외에도 탈성장 담론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요소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양적분석만으로는 그 의미가 선명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진정한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탈성장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유의표집한 인터뷰 응답자에게서 발견한 논의점들 중에서 언급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강조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제 1 절 무엇이 주류인가

성장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서구중심적인 혹은 내재화된 역사속에서 길들여진 단일한 경로의 보편성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고, 이를 해체하려는 탈성장 담론이나 활동은 필연적으로 대안적인 활동, 주류에서 벗어난 움직임, 혹은 소수의 의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지배담론의 구조안에서 이질적인 개념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입장은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서도 확인되는데, 응답자F는 '주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포함시켜 더 확대한다기보다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서 더욱 큰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응답자 D는 자신의 학창시절동안의 '대안'학교의 경험에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하면서 '나도 너무 타인으로'느껴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안적인 삶이란 말을 안 쓴지 오래'되었으며, '바라는 삶'으로 이를 명명하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역시 유사한 가치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구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그런 것과 접할 기회가 좀 있었나요?

(응답자 D) 접하는 기회는 정말 없는데, 유치원 친구들이나 이사갔던 친구들을 간혹 만나거나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저도 초등학교 중학교때에는 일반사람들, 대안학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너무 타인으로 느껴지는거야**...사회든 뭐든 교육이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에요 떨어져있는 것이 아닌거에요. **대안적인 삶? '대안적인 삶'이란 말을 안 쓴지 오래되었어요. '바라는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서적이나 글을 봤을 때, 워크샵을 열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하니까.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연구자) 탈성장 담론이 주류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응답자 F) **주류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우리가 소수일지라도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을 포섭해서 우리의 운동을 확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을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끼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지배적인 담론 혹은 전략을 차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유하기도 한다. 응답자G는 사회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경제학의 위치를 '신화'로서 경계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집중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한다.

(연구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응답자 G) 어렵지. 가장 어려운 문제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성장담론을 누가 주도하였느냐. 경제학자들? 그런데 나는 그런 사**

람들이 변화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기존 담론을 바꿔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경제학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경제학자만 그러는 것은 아닌데, 주변에서 보면 그런 편견이나 신화가 있는 것 같아…….똑같이 경제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통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나. 이런 거죠.**

이와 유사하게 응답자 E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기존의 방식을 '배워봄'으로써 단계적으로 탈성장에 부합하는 가치를 현실에 적용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의 소득'으로 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그럼 대규모 농업을 짓는다거나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삶과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해결을 한다거나 나의 가치가 조금 다르니까.

(응답자 E) **그것도 정말 괴리가 있었어요. 단계적으로 본 것이 있고요. 기존의 방식을 배워보자.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배워보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1년부터 하면 위험부담이 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선택을 한 거죠. 쌀농사와 고구마 농사를 이렇게 하면 얼마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제 2 절 '탈출'로서의 무엇이 주류인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충동적인, 그러나 숙고의 결과로서의 '탈출'이 될 수도 있고, 문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에서 나오는 '참여'일수도 있다.

1. 탈성장으로부터의 '탈출'

'먹고사는 문제'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혹은 살고자 하는 삶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뭘로 돈벌어 먹고 살래?'라는 질문은 항시 '빈약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로 하여금 '오리무중'의 상태로 만들기도 한다(응답자 E). 특히 종교와 같은 믿음이나 가치에 보다 더 강조점을 두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계가 바람직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거나 자신이 '그 안에서'는 무용하다는 느낌이 들 경우에는 '뛰쳐나오거나', '벗어나와' 탈성장의 맥락에서 관련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응답자 F, 응답자 C).

(응답자 E) 학교를 다니면서 내내 좀 방황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전공이 나와 안 맞다, 이렇게 진로고민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가다보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먹고살래 말고...**그렇게 나중에 졸업하면 여기서 살아야지 할 생각을 했는데...**뭘로 돈을 벌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는데.**

(응답자 E) 그런 과정속에서 적정기술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학의 본질이구나 하는 공대의 자부심이, 이런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 잘 써먹고 싶다는 내가 **적정기술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걸 진로고민으로 연결하니까 정말 안맞는거에요. 뭘로 돈벌어 먹고 살래는 빈약한 질문이었고,**

(연구자) 주로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응답자 F) 지금 기관에 오게 된 것은 교회라는 종교단체를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 소위 기성권 교회에서 쭉 일을 했어요...도처에 있는 **제도권 교회도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온거죠.**

(응답자 C) 방향이 다른 데로 갔을 때 당시 수입이 적게 되는 상황까지 인지가 되더라고요, 이럴 수 있겠다. **그보다는 벗어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삶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느냐고 가늠했던 것 같아요.

2. 탈성장으로의 '참여'

기존의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탈성장 성격의 활동으로 '탈출'했다기보다는 '참여'한 경우도 있다. 응답자 D는 유년시절부터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수의 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경로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었다. 성인이 됨에 따라 D는 '보통의 삶'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입시'나 '경쟁' 등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렵고 불가피한 것들보다 다른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 참여했다.

(응답자 D) 대안학교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면 좋을까, 직업보다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해요. 관계도 더 돈독하게 쌓죠, 경쟁구조가 아니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살아가는게 너무 어려운 거에요. 대학교에 가면 입시를 해야 하고, 경쟁을 해야 하고. 그런 배움 자체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나 고민이 있었고.**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직접적인 탈성장 경로로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평범한 생활방식을 벗어나는 사건으로서 사회적인 이슈가 개인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 응답자 G는 그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 삶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응답자 G) 대학 들어와서는 너무 현실을 몰랐던거지. **처음 학생회관앞에 붙어있던 5.18죽은 사람들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거야.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너무 순진하게 살았어. 도저히 안 되겠**

다, 싶어서 하게 된거고.

결국 탈성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물리적 경계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 혹은 모색을 하게 된 계기와 시점을 기반으로 하여 탈성장 운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혹은 왜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이해함으로써 탈성장 이행과정과 그 결과의 의미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제 3 절 탈성장의 속도: '인정'의 과정

탈성장 연구는 주로 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혹은 경험적인 토대를 기반의 연구는 부족하다. 여기에 더하여 탈성장으로의 이행에서 그러한 전환의 '속도'가 어떠한 요인과 결부되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 변화는 개인적 고민의 결과로서 시작될 수도 있으나(응답자 C), 대체로 주위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터뷰에서는 그러한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주위 사람들, 보다 넓게는 지역사회의 '인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연구자) 예전에 돈을 벌다가 필요한 소비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 변화가? 어떤 계기 같은 것이 있었나요?

(응답자 C)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은 몇 년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7년이니까 처음에 3년은 큰 위화감 없이 지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앞날을 고민하잖아요...방향이 다른 데로 갔을 때 당시 수입이 적게 되는 상황까지 인지가 되더라고요, 이럴 수 있겠다.

대체로 이러한 인정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식관문 혹은 통과의례를 거치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획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비주류적 삶은 여전히 '큰일 날 소리'로서 여전히 제도권으로의 복귀를 지속적

으로 요청받으며(응답자 E), 개인에게 있어서는 탈성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연구자) 독립할 때 반대는 없으셨나요?

(응답자 E) 처음에 학교를 다닐 때 나와서 살려고 해봤어요. 그때 시도를 했었지만 실패를 했었는데....**졸업을 했다는 게 엄마아빠를 안심시켰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퇴를 한다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큰일 날 소리를 한다고.** 이해를 못하셨죠. 졸업을 한 이후에 마음이 놓였는지.

(응답자 E씨) **부모님은 여전히 늦지 않았다고. 제가 집에 가면 취직할 생각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대학원이라도 가라, 등록금을 대주시겠다고.** 저는 끊임없이 뭘 하는지 끊임없이 설명을 해요....**그래서 저는 엄마아빠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죠.**

(연구자) 그럴 때는 어때요?

(응답자 B)놀리면 그래, 그래라. 그 친구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할 때 인정할 수도 있는 거고....나 혼자서 만족한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가족이나 주변에서도 인정을 하고 보여줘야 이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보여준다는 것'의 의미가 탈성장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하며, 탈성장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탈성장에서의 연대는 그러한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으로서 대안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는 응답자 D가 '불안'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는 것이나, 응답자 G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게 된 이유'라고 할 것이다. 결국 탈성장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그 속도의 문제는 행위에 참여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의 호응이나 지지 혹은 걱정이나 우려에 그 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연구자) 그런 삶에 대해서 주저하잖아요, 자신이 바라는 삶을.

(응답자 D) 불안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 불안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릴 때는) 내가 한다고 하면 **늘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할 때 혼자하지 않아도 되니까 불안한 것이 없고...**저는 어렸을 때에는 엄마가 50명, 아빠가 50명이 있는 것 같은 **든든한 기분을 받아서 자신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응답자 G) 맨 처음에 결혼을 할 때 3천만원 아버지한테 받아서 전세를 얻어서 살고. 그 다음에는 남편도 결혼한 이후에는 월급을 안 가져왔어. 가게 보증금을 야금야금 쓴거야. 둘 다 철이 없어. 그러다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나오니까...그 당시에 50-60만원 됐으려나. 나도 돈을 벌려고 과외를 했지. 일주일에 6번인가.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뭐해 많이 벌지는 못하지....**근데 어려워도 그렇게 막 어렵다고 생각이 안 다는거야. 부모님이 옆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의 쟁점은 탈성장을 지향하는 개인에 대한 정부 혹은 국가의 지원의 문제이다. 성장주의가 국가의 주도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근래에 들어서는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 등에 있어서도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가치사업을 확대하려고 시도 중이다. 응답자 F는 이러한 시도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 정부의 지원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회적 경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그러한 국가적 지원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응답자 D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탈학교'해서도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국가적 지원사업이 많다는 인상을 받아서 사회에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응답자 F)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조심스러워요...여전히 정부라든지 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민간 자립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응답자 D)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홈스쿨링, ○○○같이 각자 학교를 '탈'해서 커가는 사람이 많고. **그 일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가 된 거에요, 지금 사회가.** 올해 느낀 게 서울시도 그렇고 지방으로 워크샵을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 그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거에요, 자신의 일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4 절 활동의 확대: 보다 탈성장스럽게

탈성장으로의 이행이 속도로 봐질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탈성장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들이 구비된 단일하면서도 온전한 '탈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온전함은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나 현재와 같은 성장담론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적 격차 혹은 환경적 위기상황에서의 탈성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이러한 시도들은 부분적으로 시작되는데, 때로는 탈성장을 위한 가치집단의 모집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응답자 F는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대안으로서 홈스쿨링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지역육아카페에서 물물교환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육아공동체를 구상하여 현재까지 약 1년간 진행해오고 있다.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현재는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새로운 커

뮤니티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탈성장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기존의 성장주의를 벗어나 탈성장을 하기 위한 단초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육아공동체라는 것이 종교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건가요?

(응답자 F) 아니에요, 아주 재미있어요. 대체로 교육의 가치관이 맞거나 공교육이 맞지 않다고 **동의하거나 이렇게 공통점을 맞추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육아카페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물물교환을 하다가 그냥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 가까운 동네사람인거죠.** 그러다가 '서로 같이 보면 품앗이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종교적으로는 무교인분도 계시고 심지어 정치색도 다르고. **다채로워요, 저희는 그래요.**

(응답자 F) **같이 반찬을 나눠요. 그러다보니 비용이 절감이 되요.** 옷 입는다든지 지역 육아카페라든지 많이 드림을 받아요. 무상으로 받죠...**이 맴버들이랑은 사실 공동육아가 주된 목적인데** 결혼하면 점점 친구가 멀어져가요. 직장근무이외에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퇴근하면 주변에 친구도 없고도 한데. 지금은 지근거리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커뮤니티가 조성되는 건 있어요.**

제 6 장. 결 론

탈성장 연구는 그 자체로서 안티태제의 성격을 가진다. 비록 탈성장 개념 혹은 정치적인 슬로건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운동에 대한 비판이 '형체 없음',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한', '낭만적인 하나의 물결'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느긋한 여유로 탈성장에 대한 접근을 살펴본다면, 탈성장은 지배적인 담론으로서 성장주의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또 환경생태적 위기상황에서 그 개념을 해체하는 동시에 실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안)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가 도전적으로 실험하고자 하였던 것은 소위 '대안적' 형태로서의 가치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생활수준조차 낮출 의향이 있는 소수의 응답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탈성장과 유사한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동기나 우려, 혹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그려보는 데에 있었다. 분석의 결과로서 이 연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탈성장요인으로서 자연보호를 위해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정부대응능력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일수록 의향이 높고, 국가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의향이 높으며, 국가자긍심이 높을수록, 정치뉴스에 대한 노출이 있을수록 의향이 높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에 생활수준을 낮출 의향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았다. 또한, 나이가 증가할수록 의향이 높았으며, 교육수준 역시 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정치적 이념이나 개인소득으로서 월평균 가구총소득, 주관적 소득평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 성별과 도시화 변인이 종속변수인 탈성장 요인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적 분석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으나, 유의표집으로 연구자가 탈성장의 가치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응답자들을 선발하여 면접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누가 비주류의 삶으로서 대안적인 삶, 탈성장적 생활을 규정하는냐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기존의

지배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구별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담론과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 둘째, 동일한 탈성장의 가치 혹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계기에 따라서 '탈출'로서의 탈성장을 추구하는 것과 탈성장으로의 '참여'를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 둘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탈성장의 동력을 위해서 위와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탈성장의 가치에 참여하고, 그 구성요소를이 확장해가는 과정은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관련이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시차와 서로 다른 가치에서 살았던 부모와 같은 시간, 동일한 사회내에서 생활하는 친구사이에서 비교와 걱정, 때로는 우려와 응원이 탈성장로의 이행에 있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성장으로의 변화는 급작스럽고 온전한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황에서 그 틈을 찾을 수 있으며, 의도치 않은 기회에서도 가능성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탈성장의 개별 요소들이 서로 연관이 있으며, 활동이 확대되고 보다 탈성장스러운 형태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가 탐색하고자 하는 탈성장 가치의 선택과 그 이행과정에서의 풍경은 더욱 논의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탈성장 연구를 정리하고,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탈성장 가치의 선택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또한 실증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연구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몇 가지 존재한다. 먼저 통계분석으로 사용한 설문자료가 2014년의 것으로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연구자가 유의표집한 탈성장의 맥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표본과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GSS 2014년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설문내용이 탈성장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공동체성이나 일자리 공유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문항들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성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서라도 실증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 연구의 한계와 함께 언급하고 싶다.

참 고 문 헌

강수택·박재흥(2011).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와 탈물질주의'". 「Oughtopia」 26(3): 5-38.

강민완·이병국(2016). "위험의 정부대처능력과 사회적 취약성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공공사회연구」 6(1): 174-201.

김두식(2005). "환경주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태도 연구". 「ECO」 9: 135-180.

김상욱·김지범·문용갑·신승배(2013). 「한국종합사회조사 2012」.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상욱·이명진·신승배(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14 코드북」.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연숙(2017). "가치의 갈등과 한국인의 정치참여: 2010년 세계 가치관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6(3): 205-242.

김우창·송복·송호근·장덕진(2017), 「한국사회, 어디로?」, 파주: 아시아.

김욱(2007).『정치 참여와 탈물질주의』. 아산재단 연구총서. 파주: 집문당.

김욱·이이범(2006). '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5(2): 89-124.

김종태(2014). "한국 발전주의의 담론 구조: 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담론의 비교". 「경제와사회」 103: 166-195.

김지성·남욱현·임현수(2016). "인류세(Anthropocene)의 시점과 의미". 「지질학회지」 52(2): 163-171.

김태균(2016). "국제개발에서 사회발전으로: 한국 사회의 국제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사회발전론의 재조명". 「경제와사회」 109: 229-261.

니코 페히(고정희)(2015). 「성장으로부터의 해방: 탈성장 사회로 가는 길」. 파주: 나무도시.

마인섭·장 훈·김재한(1997).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13(2): 29-52.

박영신(2012). "탈개발주의를 향한 도덕 관심의 구조". 「본질과 현상」. 27: 90-109.

박재묵·이정림(2010). "자원봉사자의 환경주의와 탈물질주의 - 태안지역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가치관 분석". 「ECO」 14(2): 53-84.

박재흥·강수택(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 분석". 「한국사회학」 46(4): 69-95.

박재홍·강수택(2013). “환경의식의 코호트별 변화 추이와 국가간 비교”. 「OUGHTOPIA」 2(2): 109-143.

세르주 라투슈(양상모)(2014). 「탈성장 사회: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 서울:오래된생각.

_____(이상빈)(2015). 「성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할까?: 세상을 바꾸는 탈성장에 관한 소론」. 서울: 민음사.

어수영(2004). “가치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1990-2001년간의 변화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1): 193-214.

우더궁·심지(1995). 「개발과 환경의 정치학」. 서울:대왕사.

우재영(2009). “순서화 로짓모형을 이용한 농협의 선호도 분석: 충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와개발」 16(2): 405-438.

윤순진(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219-266.

이상호(2016). “생태경제학과 탈성장 조지스큐-로이젠과 라투슈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억과전망」 34: 149-186.

이홍균(2000).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 열린체계와 닫힌 체계”. 「한국사회학」. 34: 807-831.

이희연·노승철(2017).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서울:문우사.

잉글하트(정성호)(1980). 「조용한 혁명」. 서울:종로서적.

_____·웰젤(지은주)(2011).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서울:김영사.

자코모 달라사·페데리코·데마리아·요르고스 칼리스(강이현)(2018). 「탈성장 개념어 사전」. 서울:그물코.

정철희(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 가치와 공중-주도 정치”. 「한국사회학」 31(봄): 61-83.

조수룡(2016). “발전이라는 매트릭스”, 「역사와현실」 100: 359-396.

클라이브 해밀턴(2011). 「성장숭배: 우리는 왜 경제성장의 노예가 되었는가」. 서울:바오

파슬로 솔론·크리스토프 아기똥·주느비에브 아잠·엘리사벳 페레도 벨트란(김신양, 김현우, 허남혁)(2018).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서울:착한책가게.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4. 「개발학 강의」. 파주: 푸른숲.

홍성태(2015). “개발주의와 생태주의”. 「내일은 여는 역사」 58: 107-117.

황진태(2018).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을 넘어선 융복합 연구를 위한 시론(Ⅰ)”. 「대한지리학회지」 53(3): 283-303.

황진태(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1-16.

Akter, S. & Bennett, J. & Ward, M.B.(2012). “Climate change scepticism and public support for mitigation: evidence from an Australian choice experiment”, *Glob. Environ. Change* 22: 736 - .745.

Alcott, B.(2005). “‘Jevons paradox’”, *Ecological Economics* 54(1): 9-21.

Alexander, S. & Yacoumis, P.(2016). “Degrowth, energy descent, and ‘low tech’ living: Potential pathways for increased resilience in times of crisi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97: 1840-1848.

Allport, Gordon 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Holt, Reinhart&Winston.

Andor, Mark A. & Schmidt, Christoph M. & Sommer, Stephan.(2018). “Climate Change, Population Ageing and Public Spending: Evidence on Individual preference”. *Ecological Economics*, .151:173-183.

Barnofsky, A.D., et al.,(2012). “Approaching a state shift in Earth's biosphere”. *Nature* 486: 52 - 58.

Binder, Martin & Blankenberg, Ann-Kathrin.(2016). “Environmental concerns, volunteer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ntecedents and outcomes of environmental activism in Germany”. *Ecological Economics*, 124: 1-16.

Bonaiuti, M.(2012). “Degrowth: Tools for a Complex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Crisis.”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3(1): 30-50.

Capellán-Pérez, Iñigo & Mediavilla, Margarita & de Castro, Carlos & Carpintero, Óscar & Miguel, Luis. “More growth? An unfeasible option to overcome critical energy constraints and climate change”. *Sustainability Science* 10(3): 397-411.

Carlsson, F. & Kataria, M. & Krupnick, A. & Lampi, E. & Löfgren, A. & Qin, P. & Chung, S. & Sterner, T.(2012). “Paying for mitigation: a multiple country study”. *Land Econ.* 88: 326 - .340.

Castoriadis, C.(1991). *Reflection on ‘Rationality’ and ‘Development’ D. A. Curtis, ed. Philosophy, Politics, Autonomy*. Oxford: Oxford Univ.

Cattaneo, C., et al.(2012). “Degrowth futures and democracy”. *Futures* 44(6): 515 - 523.

Christian Dienes.(2015). “Actions and intentions to pay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Environmental concern and the role of economic factors". *Ecological Economics* 109: 122-129.

Crutzen, P.J. & Stoermer, E.F.(2000), "The "Anthropocene"". *Global Change Newsletter*, 41: 17-18.

Dahlberg, Linda L & Krug, Etienne G.(2006) "Violence a global public health problem". *Ciência & Saúde Coletiva*, .11(2): 277-292.

Daly, H. & Farley, J.(2011). *Ecological Economic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 ed. Island Press, Washington.

_____(2008). *A steady-state economy. In: SDC Workshop "Confronting Structure - Achieving Economic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London.

_____(1997). *Beyond Growth: The Economic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eacon Press, Boston.

_____(1990). "Toward some operational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col .Econ.* 2(1): 1-6.

_____(1974). "The Economics of the Steady Stat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4(2): 15-21.

Demaria, F. & Schneider, F. & Sekulova, F. & Martinez-Alier, J.(2013). "What is degrowth? From an activist slogan to a social movement". *Environmental Values* 22(2): 191 - 215.

Deressa, T.T. & Hassan, R.M. & Ringler, C.(2011). "Perception of and adaption to climate change by farmers in the Nile basin of Ethiopia. J". *Agric. Sci.* 149: 23-31.

Diamandis, P.H., & Kotler, S.(2012). *Abundance: The Future is Better Than You Think*. Free Press, New York.

Diekmann, A. & Preisendörfer, P.(2003). "Green and greenback: the behavioral effects of environmental attitudes in low-cost and high-cost situations". *Ration. Soc.* 14: 441 - 472.

Dietz, T. & Stern, P.C. & Guagnano, G.A.,(1998). "Social Structures and social psychological bases of environmental concerns". *Environ. Behav.* 30: 450-471.

Ding Hooi Ting.(2017). "Measuring the marginal effect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guided learning and behavioral enhancement". *Journal of Hospitality* 20: 16-26.

Drews, S. & Antal, M.(2016). "Degrowth: a 'missile word' that backfires?". *Ecol. Econ.* 126: 182 - 187.

Dryzek, J.S.(2013).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s*. Oxford University Press

Dunlap, R.E. & Mertig, A.G.(1995). "Global concern for the environment: is affluence a prerequisite?" *J. Soc. Issues* 51: 121 - 137.

D'Alisa, G. & Deriu, M., & Demaria, F.,(2015). *Care. In: Degrowth: a Vocabulary for a New Era.* Routledge, Oxon and New York.

Ellwood, W.(2014). *The No-Nonsense Guide to Degrowth and Sustainability.* Oxford: New Internationalist.

Elliott, L.M.,(2004). *The Global Politics of the Environment.* Palgrave Macmillan, Basingstoke.

Escobar, Arturo.(1995).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Esteva, Gustavo.(1992). *"Development," in the Development Dictionary; a Guide to Knowledge as Power*, London; Zed Books.

Evans, J.H. & Feng, J.(2013) "Conservative Protestantism and skepticism of scientists studying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121(4): 595-608.

Fischer, R. & Vauclair, C.M. & Fontaine, J. R. & Schwartz S. H.(2010). "Are Individual-level and Country-level Value Structures Different? Testing Hofstede's Legacy with the Schwartz Value Surve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2): 135-151.

Flipo, F., Schneider, F.,(2008). Final declaration of the conference. In: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De-growth for Ecological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Paris, 317-318.

Fotopoulos, T.(2010). "Direct democracy and de-growth". *Int. J. Incl. Democr.* 6.

Fournier V.(2008). "Escaping from the economy: the politics of degrowth". *Int. J. Sociol. Soc. Policy* 28(11/12): 528-545.

Frank, R.(2000) *Luxury fever: weighing the cost of excess*, New York; the Free Press.

Franzen, A. & Meyer, R.(2009). "Environmental attitudes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ISSP 1993 and 2000". *Eur. Sociol. Rev.* 26: 219 - 234.

Fu, V.(1998). "Estimating generalized ordered logit models". *Stata technical bulletin* 44: 27 - 30.

Giddings, B. & Hopwood, B. & O'Brien, G.(2002).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fitting them together into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 Dev.* 10(4), 187 - 196.

Giorgos Kallis.(2011). "In defence of degrowth". *Ecological Economics* 70: 873-880.

Giorgos Kallis & Vasilis Kostakis & Steffen Lange & Barbara Muraca & Susan Paulson & Matthias Schmelzer(2018). "Research on Degrowth". *Annu. Rev. Environ. Resour.* 43(4): 291-316.

Guagnano, G.A. & Stern, P.C. & Dietz, T.(1995). "Influences on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s: a natural experiment with curbside recycling". *Environ. Behav.* 27: 699 - 718.

Hayes, B.C.(2001). "Gender, scientific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a cross-national analysis". *Polit. Res.* 54: 657-671.

Hubert Buch-Hansen.(2018). "The Prerequisites for a Degrowth Paradigm Shift: Insights from Critical Political Economy".*Ecological Economics* 146: 157-163.

Hueting, R.(2010). "Wh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an most probably not be attained with growing production". *J. Clean. Prod.* 18: 525-530.

In^es Cosme & Rui Santos & Daniel W. O'Neill.(2017). "Assessing the degrowth discourse: A review and analysis of academic degrowth policy proposal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49; 321-334

_____(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 991-1017.

Jackson, T.(2009). *Prosperity Without Growth: Economics for a Finite Planet.* Earthscan, London.

Jacobs, M.(2013). *Green growth. Handbook of Global Climate and Environmental Policy.* Wiley-Blackwell, Malden, MA.

Janicke, M.,(2012). ""Green growth": from a growing eco-industry to economic sustainability". *Energy Policy* 48: 13-21.

Jevons, W.S.(1865). *The Coal Question: an Enquiry Concerning the Progress of the Nation, and the Probable Exhaustion of Our Coal-mines.* Macmillan, London.

Jin Xue.(2014). "Is eco-village/urban village the future of a degrowth society? An urban

planner's perspective". *Ecological Economics*, 105: 130-138.

Kachi, A. & Bernauer, T. & Gampfer, R.(2015). "Climate policy in hard times: are the pessimists right?". *Ecol. Econ.* 114: 227-241.

Kaitlin Kish & Stephen Quilley(2017). "Wicked Dilemmas of Scale and Complexity in the Politics of Degrowth". *Ecological Economics* 142: 306-317.

Kallis, G.(2011). "In defence of degrowth". *Ecol. Econ.* 70: 873-880.

_____ & Kerschner, C. & Martinez-Alier, J.(2012). "The economics of degrowth". *Ecol. Econ.* 84: 172 - 180.

E. Keith Smith & Lynn M. Hempel & Kelsea Macllry(2018). "What's 'evangelical' got to do with it? Disentangling the impact of evangelical Protestantism on environmental outcomes". *Environmental Politics*. 27(2): 292-319.

Kemp, R.&Parto, S. & Gibson, R.(2005).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oving from theory to practice". *Int. J. Sustain. Dev.* 8(1): 12 - 30.

Kerschner, C.(2010). "Economic de-growth vs. steady-state economy". *J. Clean. Prod.* 18: 544-551.

Kutner, N. N.(2004). *Applied Linear Regression Models*, McGraw-Hill Irwin(4th)

Liebe, U. & Preisendörfer, P. & Meyerhoff, J.(2011). "To pay or not to pay: competing theories to explain individuals. Willingness to pay for public environmental goods". *Environ. Behav.* 43: 106 - .130.

Long, J. S., & Freese, J.(2014).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dependent variables using stata.*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Malthus, T.R., 1798.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Libr. Econ. Lib.

Martinez-Alier, J.(2012). "Environmental Justice and Economic Degrowth: An Alliance between Two Movements."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3(1): 51-73.

_____ & Pascual, U. & Vivien, F.-D. & Zaccai, E.(2010). "Sustainable de-growth: mapping the context, criticisms and future prospects of an emergent paradigm". *Ecol. Econ.* 69: 1741-1747.

McCright, A.M.(2010). "The effects of gender on climate change knowledge and concern in the American public". *Popul. Environ.* 32(1): 66-87.

McCullagh, P. & Nelder, J. A.(1989). *Generalized linear models*. London, UK: Chapman and Hall.

Nicholas Georgescu-Roegen(1977) “Inequality, Limits and Growth from a Bioeconomic Viewpoint”. *Review of Social Economy*, 35(3): 361-375.

_____(1976). *Energy and Economic Myths.* New York: Pergamon Press Inc.

Odum, H.T. & Odum, E.C.(2001). *A Prosperous Way Down: Principles and Policies.*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Boulder.

O’Neill, D.W.(2012). “Measuring progress in the degrowth transition to a steady state economy”. *Ecol. Econ.* 84: 221-231.

Page, B.I. and Shapiro, R.Y. (1983), “Effects of public opinion on poli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1): 175-190.

Patt, A. G. & Weber, E. U.(2013). “Perceptions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the many uncertainties relevant for climate policy”.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5: 219 - 32.

Poortinga, W. & Steg, L. & Vlek, C.(2004). “Values, environmental concern, and environmental behaviour: a study into household energy use”. *Environ. Behav.* 36: 70 - .93.

Quilley, S.(2017). “Navigating the anthropocene: environmental politics and complexity in an era of limits. In”: Victor, P., Dolter, B. *Handbook of Growth and Sustainability*. Edward Elgar, Cheltenham

Latouche, S.(2012). “Can the Left Escape Economism?.”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3(1): 74-78.

_____(2010). “Degrowth”.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8(6): 519-522.

_____(2009.) *Farewell to Growth.* Cambridge: Polity Press.

_____(1996). *The Westernization of the World.* Cambridge: Polity Press.

Richard Williams.(2016).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generalized ordered logit models”. *The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40(1):1-14.

Williams, R.(2006). “Generalized ordered logit/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s for ordinal dependent variables”. *Stata Journal*, 6: 58 - 82.

Rokeach, Milton.(1968).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Jossey-Bass.

_____(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Free Press.

Lozano, R. & Lukman, R. & Lozano, F.J. & Huisingh, D. & Lambrechts, W.(2013).

"Declarations for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becoming better leaders, through addressing the university system". *J. Clean. Prod.* 48:10-19.

Ryan Gunderson & Sun-Jin Yun.(2017). "South Korean green growth and the Jevons paradox: An assessment with democratic and degrowth policy recommendation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44: 239-247.

Gunderson, Ryan & Stuart, Diana & Petersen, Brian & Yun, Sun-Jin.(2018). "Social conditions to better realize the environmental gains of alternative energy; degrowth and collective ownership". *Futures*, 99: 36-44.

Saed.(2012). "Introduction to the Degrowth Symposium",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3(1): 26-29.

Schneider, F. & Kallis, G. & Martínez-Alier, J.(2010). "Crisis or opportunity? Economic degrowth for social equ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Introduction to this special issue". *J. Clean. Prod.* 18, 511e518.

Schwartz, Shalom H.(2006). "A Theory of Cultural Value Orientations: Explication and Applications." *Comparative sociology* 5.2: 137-182.

_____ & Wolfgang Bilsky.(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i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78.

Solow, R.M.(1974). "The economics of resources or the resources of economics". *Am. Econ. Rev.* 64 (2): 1 - 14.

Speth, G.(2008). *The Bridge at the Edge of the World.* New Haven and. Yale University Press, London.

Stefan Drews & Jeroen C.J.M. & van den Bergh(2016) 'What explains public support for climate policies? A review of empir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Climate Policy* 16(7): 855-876.

Stefano B. Longo & Joseph O. Baker(2014) "Economy "Versus" Environment: The Influence of Economic Ideology and Political Identity on Perceived Threat of Eco-Catastrophe". *The Sociological Quarterly* 55(2): 341-365.

Steffen, W. & Crutzen, P.J. & McNeill, J.R.(2007). "The Anthropocene: are humans now overwhelming the great forces of nature". *AMBIO A J. Hum. Environ.* 36: 614-621

Steg, L., Vlek, C.(2009). "Encouraging pro-environmental behaviour: an integrative review and research agenda". *J. Environ. Psycho.* 29: 309 - 317.

Stern, P.C. & Dietz, T. & Guagnano, G.A.(1995). "The new ecological paradigm in social. psychological context". *Environ. Behav.* 27: 723-743.

Sun-Jin Yun(2001). Restructuring political economy in an ear of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change: toward a civil society approach to promote a climate - sustainable future.

Trainer, T.(2012). "De-growth: do you realize what it means?" *Futures* 44(6): 590 - 599.

Tremblay, Kenneth R., Jr. & Riley E. Dunlap.(1977). "Rural - Urban Residence and Concern with Environmental Quality: A Replication and Extension." *Rural Sociology* 43(3): 474 - 491.

Turner, G.(2014). *Is Global Collapse Imminent?* MSSI Research Paper No. 4. Melbourne Sustainable Society Institute.

Van den Bergh, J. C. J. M.(2011). "Environment versus Growth-A criticism of degrowth and a plea for a-growth." *Ecological Economics*. 70(5): 881-890.

Veronesi, M. & Chawla, F. & Maurer, M. & Lienert, J.(2014). "Climate change and the willingness to pay to reduce ecological health risks from wastewater flooding in urban centers and the environment" *Ecol. Econ*. 98: 1 - 10.

Vicente-Molina, M.A. & Fernández-Sainz, A. & Izagirre-Olaizola, J.(2018). "Dose Gender make a difference in pro-environmental behavior? the case of the basque countr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76: 89-98.

Victor, P.(2008). *Managing Without Growth: Slower by Design, Not Disaster*. Edward Elgar, Cheltenham.

Weiss, Martin & Claudio Cattaneo.(2018) "Degrowth - Taking Stock and Reviewing an Emerging Academic Paradigm." *Ecological Economics* 137: 220 - 230.

Will Steffen & Jacques Grinevald & Paul Crutzen & John McNeill.(2011). "The Anthropocene: conceptu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369(1938): 842-867.

Whitehead, M.(2013). "degrowth or regrowth?" *environmental values* 22(2): 141-145.

Wicker, P. & Becken, S.(2013). "Conscientious vs. ambivalent consumers: do concerns about energy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 influence consumer behavior?" *Ecol. Econ*. 88: 41 - 48.

Woodrum, E. & Wolkomir, M.J.(1997). "Religious effects on environmentism". *Sociological Spectrum* 17(2): 223-234.

Xiao, C. and Hong, D.(2010). "Gender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behaviors in China".

Popul, Environ. 32:88-104.

Yang, Yingkui ; Solgaard, Hans Stubbe,(2015). “Exploring residential energy consumers' willingness to accept and pay to offset their co2 emi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Sector Management* 9(4): 643-662.

Zelezny, L.C., Chua, P.P., Aldrich, C.,(2000). “Elaborating on gender differences in environmentalism”. *J.Soc.* 56: 443-457.

Zsoka, A., Szerenyi, Z.M., Szechy, A., &Kocsis, T.(2013). “Greening due to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knowledge, attitudes, consumer behavior and everyday pro-environmental activities of Hungarian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48:126-138.

신문 기사

한국일보(2018.01.23.), “공항철도, 올림픽기간 열차시간 조정...평창행 KTX 하루 32회 운행”.

뉴스1(2018.02.15.), “KTX보다 싼‘대구~김포’ 항공노선, 수도권 접근 ‘수월’”.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impact factors to choose 'degrowth'

LEE DONGKWA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the global level, the impact of human historical actions is no longer new. Gaining a material successes from, we face into an environmental crisis such as unexpected poverty, social discrimination and gap, especially in climate change issues. Various proposals have been presented in response to western-centered growth-ism. Degrowth is also one of those alternatives. But despite the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ecological difficulties facing humanity, few people still pursue alternative lives or lifestyles that deviate from growthism.

This study tried to explore what factors were influencing to the few who pursued the value of degrowth, and how they are led to the alternatives, and non-mainstream through interviews wi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ore the government is well handling the problems, the more feeling to vote for willing to lower the standard of living, and the more positive it predicts for Korea's future economic conditions. In addition, it shows the national pride has significant on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data also let

know political news and the older are more likely to choose 'degrowth' lifestyle. Plus,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statistically confirms that the positive correlation exists.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ers interviewed participants who were actually active found that frame to call degrowth as alterantive is important to interpret the meaning in terms of degrowth. Second, even if there was open to anyone who wish to involve in, it needs to recognize between the motives why the participants were stepping into degrowth life as alternative, which means there might be different between 'exile' and 'participa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determining the speed of the transition to the degrowth is strongly influenced not only by the participants themselves but also b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especially by their parents or friends. Finally, the various elements of degrowth are not appearing in complete form at once, but rather are beginning in stages or coincidentally and changing into more nongrowth way.

The study will firstly be meaningful,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and experimental study of degrowth in the domestic. It would also be meaningful in that by applying qualitative methods with interview for degrowth itself. Despite this significance, however, there are several fatal limitations to this research. First, the data for statistical analysis are not designed solely for degrowth(2014). And secondly the KGSS has relatively few questions to match the factors of degrowth. The difficulties of such research can be found in the basic data lack or non-visibility of the concept itself. Lastly, I hope the attempt to lift a degrowth is keeping going and make it ‘visible’ in real world.

Keywords : degrowth, developmentalism, post-materialism, compressed growth, ordered logit

Student Number : 2017-26726